



베트남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

2017년 11월, 하노이

목차

약어 소개

알리는 말씀

요약

주요 결과

I. 서론

- I.1. 개관: 베트남 핵심 산업인 전자산업
- I.2. 연구 목적
- I.3. 연구 방법론
- I.4. 연구 지역
- I.5. 대상 집단
- I.6. 연구 수행 과정
- I.7. 연구의 한계

II. 베트남 전자산업 개괄

- II.1. 설립과 발전
- II.2. 베트남 전자산업의 작업 조건
- II.3. 국제 이슈가 된 전자산업 유해화학물질

III. 베트남 전자 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경험 : 질적 연구

- III.1. 인터뷰 참가자 일반 정보
- III.2. 노동 시간
- III.3. 작업 유형
- III.4. 작업 환경에 대한 인식
- III.5. 인터뷰 참가자들의 건강
- III.6. 안전 보건 우려지점
- III.7. 노동시간 이외의 삶
- III.8. 작업장 위계, 꾸짖음, 압박
- III.9. 미래 계획

결론 및 권고

부록 1: 노동자들의 이야기

- 이야기 1
- 이야기 2
- 이야기 3
- 이야기 4
- 이야기 5

부록2: 베트남 전자산업 연혁

부록3: 전자산업 유해화학물질은 신규국제정책 이슈

약어 소개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FTA ASEAN Free Trade Area

MPI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CGFED Research Centre for Gender, Family and Environment in Development

VEI Vietnamese electronics industry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GDP Gross Domestic Product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MOLISA 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NICs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GSO Vietnam General Statistics Office

VCCI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알리는 말씀

개발과 젠더,가족,환경 연구센터(Research Centre for Gender, Family and Environment in Development, CGFED)는 베트남 비정부단체로 24년 동안 젠더 평등에 기초하여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명을 가지고 젠더 문제에 대한 실천 연구와 정책을 만들어왔습니다.

이 연구의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고 정보를 공유해주신 각 지역의 여성과 남성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크나큰 열정과 헌신, 드높은 책임감으로 이 사회, 특히 여성에게 더 안전하고 나은 삶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일해오신 연구팀에게 감사합니다.

특히 이 연구의 수행과 보고서 작성에 열의를 갖고 지속적인 도움을 주신 IPEN의 과학기술고문 조세프 디간지씨에게 감사합니다.

CGFED와 IPEN은 이 보고서가 나올 수 있기까지 스웨덴 정부와 여타 기부자들의 재정적 도움을 받았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보고서에 담긴 관점과 해석은 재정 지원을 제공한 기관들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CGFED와 IPEN에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삶 전반에 대한 첫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전자산업의 규모와 노동력, 노동조건에 대해 배우고, 환경 위험이나 노동자 건강에 대한 영향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고취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고서가 여성에게 안전한 노동환경을 확보하고 기초적인 노동권 향유를 촉진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간과 자원의 한계 때문에 이 보고서의 분석들은 다소 부족할 지 모릅니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을 기다립니다!).

연구팀을 대표하여
CGFED 부대표
Pham Thi Minh Hang

1) 이 연구는 IPEN과 CGFED가 여러 단체와 개인의 도움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이 보고서의 관점, 의견, 결론, 권고가 반드시 CGFED나 연구 대상 기관 및 개인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CGFED의 Pham Thi Minh Hang(hangpham@cgfed.org.vn) 혹은 Pham Huong Thao, (phamhuongthao@gmail.com)에게 보내주십시오.

요약

최근 몇년 간 전자산업은 베트남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고, 인근 지역은 물론 세계 시장의 수출업종으로서 큰 가능성을 가진 선도 산업이 되었다. 베트남 통계국에 의하면 2013년에 전자제품 수출이 베트남 핵심 산업인 의류 부문을 최초로 앞질렀다. 현재 전자산업은 수출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 베트남 전자산업은 전화, 컴퓨터 등을 포함하여 총매출 460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6년에는 수출이 530억 달러로 증가했다. 전자산업 총 고용 규모는 2005년 4만 6천명에서 9년 뒤에는 41만 1천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80%는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여성들이다. 전자산업이 급속히 성장해왔고 베트남 경제의 "통합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기는 하나, 이 산업의 노동조건에 대한 정보, 특히 환경과 노동자 건강에 대한 영향에 대한 정보는 제한되어 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가동을 시작한 것은 1996년이다. 20년 후 삼성은 등록 자본 규모 총 148억 달러인 베트남 최대의 외국인 투자자가 되었다. 2016년 베트남 삼성전자의 매출은 463억 달러에 달하며, 400억 달러는 수출로 달성한 것이고 2015년에 비하여 9.9% 증가하였다(베트남 총 수출의 22.7%). 고용은 13만 7천명에 달한다. 베트남 삼성 공장 중 박닌(Bac Ninh)과 타이응웬(Thai Nguyen) 공장은 베트남에서 뿐 아니라 삼성전자의 세계 시스템 내에서도 핵심을 차지한다. 가령 삼성은 현재 휴대전화 중 50%를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생산량은 8%에 불과하다. 2016년 베트남 삼성 공장의 매출은 360억 달러였고, 삼성의 제품들은 78개국과 지역으로, 특히 대부분 유럽과 미국에 집중되어 수출되었다. 베트남에서 어떤 이들은 삼성전자를 "전자산업과 외국인 직접 투자의 성공 사례"로 평가한다.

전자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 보고서와 연구들은 많은 반면, 거기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대체로 외면받아왔다. 이번 연구는 현존하는 베트남 전자산업 노동조건 관련 문헌들에 특별한 기여를 보태고 있다. 이 연구는 산업 부문 연구와 더불어 박닌과 타이응웬에 있는 두 개의 대형 삼성 공장 여성 노동자들 45명의 질적인 서사(내러티브)를 결합시키고 있다. 베트남에서 이루어진 비슷한 연구들 중 여성이 대부분인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경험을 드러내는 첫 연구다. 삼성은 악명높을 정도로 비밀스럽기에 삼성 공장 현장에서의 생활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이 연구의 1단계에서는 문서 기반 연구법을 통해 베트남 전자산업 현황과 역사 및 정부와 국제노동기구의 노사정책과 권고를 정리하였다. 2단계에서는 질적 방법을 사용하여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 45명의 이야기를 보여주어 이들의 노동 조건과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전자산업 노동자들과 주변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 실행과 행동이 필요함을 확인시켜준다. 전자산업과 이 분야가 베트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 특히 여성에 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젠더에 따라 분류된 자료가 더 많아져야 한다. 끝으로, 이 연구는 전자산업의 화학물질과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대중적 인식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결과

이 보고서의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자산업은 베트남에서 가장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산업이며 2016년에는 530억 달러, 삼성 단독으로도 360억 달러의 수입을 거두었다. 현재 삼성 휴대전화의 50%는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다.

* 베트남에서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제품 표준 개발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업장 안전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없다.

* 베트남 전자산업 노동력은 대부분 여성으로 이루어져있다. 노동자의 약 80%가 여성이며, 이들은 관리체계 상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조립 라인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 베트남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자산업체의 약 3분의 1은 초과근무에 대한 베트남법을 위반하였다. 17개 전자산업체에 대한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2개 업체의 초과근무는 생산량이 많을 때 월 100시간 이상, 다른 세 업체는 50~60시간이었다. 베트남법은 초과근무를 월 30시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 조사에서는 “지나치게 긴 초과근무는 전자산업체 산재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였다(베트남 노동장애사회부 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2016).

* 이 연구를 위해 인터뷰에 참여한 삼성의 여성 노동자 45명 중 자신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이는 베트남법 위반이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회사가 보관하고 있으며 사본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 베트남 전자산업의 건강 영향은 연구된 적도 알려진 바도 없다. 그러나 정부는 전자산업의 심각한 건강 문제 개연성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두었다; “전자산업 노동자 안전 문제들은 화학물질, 방사선, 전기파 노출로 인한 암이나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는 단지 추론일 뿐이며 실제 납중독과 직업병들이 존재한다 하여도 통계상 입증된 것은 아니다.”(베트남 노동장애사회부 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2016)

* 이 연구에서 반 이상의 여성 노동자들은 기혼 상태로 입사 전에 자녀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유자녀 여성들은 모두 자녀들과 떨어져 있으며, 자녀들은 다른 마을이나 도시에서 조부모들과 살고 있다.

* 여성 노동자들은 4일간의 주야 교대근무, 9~12시간 내내 서서 일해야 함, 통상 베트남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높은 소음 수준 등 고단한 노동조건에 대해 말했다. 임신한 노동자들은 근무 내내 서서 일하지만 휴식을 취하는 것은 허락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휴식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이유는 만일 이들이 너무 많이 쉬다고 삼성이 생각

하면 임금을 삭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회사는) 생산라인에 최대한 머물게 하기 위해 화장실에 가려면 ‘화장실 카드’를 요청해야 할 정도로 시간을 통제하고 있다.

* 이 연구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보고하였다. 45명 모두 근무 중 실신 혹은 어지러움을 보고하였는데, 이런 증상이 교대근무의 “정상적인” 결과라고 표현하였다. 유산은 “젊은 사람이라면 매우 정상적인” 일로 보고되었다. 그밖의 문제들로는 시력 손상, 코피, “커지는 종아리(다리 부종을 이렇게 표현함-역주)”, 외모의 변화, 위장과 뼈, 관절의 통증 등이 있었다.

* 이 연구에서 인터뷰한 여성들은 직접 화학물질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세정제가 화학물질을 함유하였다거나 공장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노출된다는 생각이 없었다. 휴대전화공장의 업무에는 페인트, 잉크, 화학물질을 함유한 세정제 등을 이용하는 일들이 포함된다. 공정 단계 중에는 가열, 금속 코팅 가스 처리, 도색, 레이저 새김, 절단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모두 화학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공정들이다.

* 노동조합 결성과 단결의 자유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조와 98조의 요건이지만 베트남은 이들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베트남 전국 산업 및 무역 노동조합(the Vietnam National Union of Workers in Industry and Trade)은 인더스트리올(IndustriALL)에 가입해있고 전자산업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무노조 정책을 갖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필요하지 않은 경영 원칙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삼성의 내부 문건에서는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기 위한 회사의 행위들이 서술되어 있었다.

결론 및 권고

2017년 베트남의 삼성은 600억 달러의 매출 및 5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삼성은 베트남에서 부품 제조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2017년 말에 15만명으로 늘어날라 예측된다. 베트남의 전자산업은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많은 고용 기회를 창출해왔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이 산업의 환경, 안전보건대책, 노동력의 건강 등이 함께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베트남 정부는 이 부문에 자본 투자를 유인하고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이는 이 산업이 노동자 건강과 환경에 끼칠 해로움을 간과하는 것이다. 베트남 여성 노동자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있다. 연구팀은 이 보고서에 기록된 문제들에서 도출된 13개의 권고를 제안한다. 이 권고는 노동자와 환경보건에 대처하는데 중요한 단계들이다. 여기에는 법과 규제 대책, 정보 접근성, 젠더에 따라 분류된 자료를 이용하여 노동자 건강 문제를 규명하고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독립적 연구 등이 포함된다.

I. 서론

I.1. 개관: 베트남 핵심 산업인 전자산업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국 중 하나다. 이 성장은 거의 전자산업 때문으로, 전자산업은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산업의 규모와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건강과 환경에 끼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정보는 결여되어 있다. 이는 특히 여성 건강에 중요하다. 노동력의 약 80%가 여성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베트남 전자산업에서 노동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험과 어려움에 대한 최초의 연구다.

개발 전략으로서의 전자산업

전자산업은 베트남 정계의 최고위급으로부터 환영을 받아왔다. 2007년 4월 23일 총리의 결정을 통해 전자산업을 2007~2020년의 세 가지 핵심 산업 중 하나로 유지하기로 확정하였다.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의 외국인투자과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베트남은 삼성, 폭스콘, 엘지, 파나소닉, 인텔, 노키아 등 주요 기업들로부터 100억 달러 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해왔다. 베트남 통계국에 따르면 2013년에 처음으로 전자제품 수출이 베트남 핵심 산업인 의류 부문을 앞섰다(GSO, 2015). 전자산업은 현재 1등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GSO, 2015). 2015년 베트남 전자산업은 전화기, 컴퓨터 등을 포함하여 총매출 460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6년 전자산업 수출은 530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그 결과 다른 모든 산업을 앞섰다.

대다수가 여성 노동력

전자산업의 총 노동력 규모는 2005년 4만 6천 명에서 9년 뒤 약 41만 1천 명으로 증가하였고, 이 가운데 약 80%는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여성이다(ILO, 2016). 이 산업이 급속 성장해왔고 베트남 경제의 “통합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ILO, 2016), 노동조건, 특히 환경 및 노동자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베트남 전자산업을 선도하는 삼성

삼성은 1996년에 베트남에서 가동을 시작했다. 20년이 지난 뒤 이 회사는 총 등록 자본 148억 달러인 베트남 최대의 외국인 투자자가 되었다(Trang, 2016). 2016년 베트남 삼성의 소득은 400억 달러 수출 등 463억 달러로 2015년보다 9.9% 증가하였고(베트남 전체 수출 규모의 약 22.7%), 거의 13만 7천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베트남에 있는 삼성 공장들 중 핵심은 박닌과 타이응웬에 있는 공장들로, 베트남에서 뿐 아니라 삼성의 글로벌 시스템 중에서도 핵심 시설이다. 가령 삼성 휴대전화 중 남

노동자들의 임금은 회사의 판매와 대조를 이룬다. 여성 노동자 A는 “매달 기본급으로 650만VND(미화 280달러)를 받아요. 방세로 70만VND가 들어요. 식비와 교통비를 내고 나면 매달 고작 300만VND 정도 저축할 수 있어요... 아파도 출근하려 애쓰고 있어요. 가령 약간 어지럽고 구역질이 날 땐 아주 피곤하더라도 그냥 일하러 가요. 일을 하루 안하면 보너스를 엄청 깎일 수 있거든요. 일당은 높지 않지만, 만일 일을 하루 하지 않는다면 저는 100만 VND 정도를 잃게 되요.”

노동자들과의 인터뷰 내용은 부록1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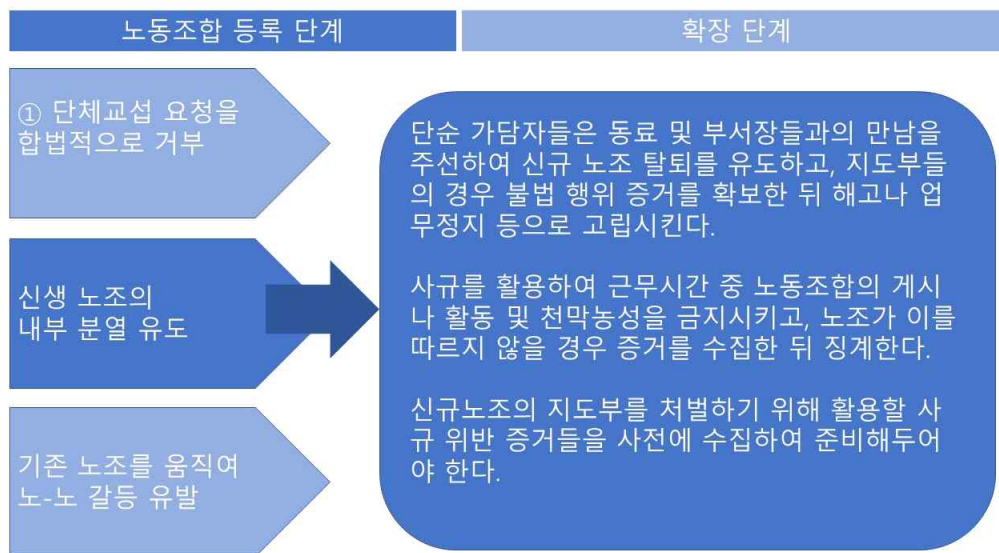
한에서 생산되는 것은 8%에 지나지 않으나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양은 50%에 달한다(Cho, 2015).

2016년 베트남 삼성 공장들이 거둔 총매출은 360억 달러였고, 그 제품들은 78개국과 지역, 대부분 유럽과 미국에 집중적으로 수출되었다. 베트남에서 삼성전자는 “전자산업과 외국인 직접 투자의 성공 사례”(Vuong, 2016)로 칭송되기도 한다. 따라서 삼성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는 베트남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삶 일반을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

노동조합 결성과 단결의 자유는 국제노동기구 협약 87조(ILO, 2017)와 98조(ILO, 2017)의 요건이지만 베트남은 이들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베트남 전국 산업 및 무역 노동조합(the Vietnam National Union of Workers in Industry and Trade)은 인더스트리올(IndustriALL)에 가입해있고 전자산업 노동자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무노조 정책을 갖고 있으며(ITUC, 2016) “노동조합이 필요하지 않은 경영 원칙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삼성의 내부 문건(ITUC, 2016)에서는 노동조합 조직을 시도할 것 같은 노동자들을 찾아내고 감시하며 노동조합 결성을 방해하기 위해 그들을 고립시키는 방법 등을 포함, 노동조합 결성을 무력화하기 위한 회사의 행위들이 서술되어 있었다.

회사가 노동조합을 훼손하기 위한 방법들을 서술하고 있는 삼성의 파워포인트 자료 중 발췌

2. 노조가 있는 사업장들의 대응방법



출처: 국제노동조합총연맹과 인더스트리올(2016)의 ‘삼성-현대화된 기술, 중세의 조건’ (http://www.ituc-csi.org/IMG/pdf/samsung_web_en.pdf)



박닌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은 건물 외벽에 대규모 수출 실적을 게시하고 있다. 사진출처:
<http://www.businesskorea.co.kr/english/news/industry/8785-samsung-made-vietnam-50-samsung-mobile-phones-madevietnam>

1.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핵심 목적은 두 가지였다.

1. 베트남 전자산업의 규모, 노동력, 노동조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서술하고 그 노동환경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위험과 영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것.
2. 노동조건과 건강 상태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 삼성전자 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는 것.

전자산업 여성들의 건강 문제와 노동조건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산업에 대하여, 그리고 이 산업이 베트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대중적으로 활용 가능한 지식이 많아져야 한다. 연구 결과들은 전자산업 노동자들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예방할 정책 및 실천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 산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특별히 초점을 두어야 한다. 대중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보들을 통해 노동조건, 화학물질 안전 및 다른 문제들, 특히 여성과 관련된 일들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1.3. 연구 방법론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 * 문헌 고찰과 평가 및 종합. 법적 문서와 정책, 학술연구 문헌, 커뮤니케이션 자료 등 베트남 전자산업과 관련된 문헌들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 * 심층 인터뷰 지침과 생애 기술 방법론을 이용한 현장 조사.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모든 대화를 일대일로 수행하였으며,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느낌 및 관점을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대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인터뷰 진행자들은 인

터뷰 대상자들을 존중하고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는 등의 원칙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문항 중에는 베트남에서 민감한 주제인 성희롱에 관한 용어들이 들어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인터뷰 진행자가 인터뷰 대상자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한 뒤 그 여성이 충분히 편안하게 느낄 때만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모든 인터뷰에서 사전 고지와 노동자 신상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유지를 보장하였다.



하노이 인근 북쪽에 위치한 박닌 삼성공장. 지도 출처: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3836128/Inside-Samsung-s-scandal-hit-Hanoi-factoryworkers-earn-33-week-install-exploding-batteries-scrapped-Galaxy-Note-7-mobile-phone.html>

I.4. 연구 지역

현장 조사는 두 곳의 삼성 공장 인근에서 진행되었다.

1. Yen Phong 1 Industrial Zone, Yen Trung Commute, Yen Phong District, Bac Ninh. 박닌 지방 옌풍 district의 옌풍I 공업지구에 총 100헥타르 면적을 지닌 베트남 삼성전자(SEV)는 삼성의 계열사다. SEV는 휴대용 핸드셋과 기타 첨단 전자장비들을 생산하는데 특화되어 있으며 4만 4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다. 옌풍1은 지금까지 약 8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해왔으며, 이 중 72억은 외국인 직접 투자다. 작년에 삼성은 이 공단에 대한 투자를 30억 달러 배당하였다. 30억 달러의 추가 투자로 박닌의 삼성 디스플레이의 총 투자액은 40억 달러가 되었고, 이는 베트남 삼성 기업 총 투자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가 되었다.

2. Yen Binh Industrial Zone, Pho Yen, Thai Nguyen province. 베트남 타이응웬 삼성전자(SEVT) 복합단지에는 옌빈 공업지구에 100헥타르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3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자본과 총 투자액 1천 5백만 달러에 달하는 항공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삼성 그룹의 최대 프로젝트다. 현재 약 6만 2천 명의 노동자들이 이곳에 고용되어 있으며 이들 중 75%는 여성이다(Thuat, 2017).

1.5. 대상 집단

박닌의 옌퐁 산업지구, 타이응웬의 포옌 산업지구 두 곳의 삼성전자 생산지역 여성 노동자들.

1.6. 연구 수행 과정

이 연구는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 자료 수집 및 조사도구 개발

- * 자료와 문헌들은 다음과 같이 수집하였다; a) 통계국, 기획투자부, 보건부 등 주요 기관들, the Institute for Development and Community Health(LIGHT)와 Centre for Development and Integration(CDI) 등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직접 접촉하여 수집. b) ‘전자산업’, ‘베트남 전자산업’이라는 검색어를 가지고 검색엔진을 통해 웹사이트에서 수집.

- * 반-구조화된 심층 인터뷰는 스토리텔링과 생애 경험 서술을 기반으로 개발하였으며, 사회학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2명의 심층 인터뷰를 시험한 뒤에 완성하였다. 심층 인터뷰는 네 가지 핵심 주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터뷰 대상자의 개인 정보(가족, 교육수준 등 사적인 조건을 알기 위하여), 직업력과 현재 직장을 선택한 이유, 현재 노동환경(노동시간, 작업 공간, 건강상태, 휴식과 여가 시간, 동료 및 관리자와의 관계), 앞으로의 계획과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기대.

2단계: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2차에 걸쳐 일대 일 면접으로 구성되었다.

1차: 2016년 11월 45명의 참여자 인터뷰(박닌성 옌퐁 21명, 타이응웬성 포옌 24명)

2차: 2017년 3월 박닌성 옌퐁에서 12명, 타이응웬성 포옌에서 13명에 대한 후속 인터뷰. 인터뷰 대상자들은 1차에서 이미 인터뷰를 했던 분들로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조사하였다. 이들의 숙소에서, 또는 근무지나 숙소 근처의 카페에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터뷰 장소는 대화하기 가장 편한 공간을 위하여 여성 노동자들이 선정하였다.

처음에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다소 망설였다. 첫 인터뷰를 수행하는 동시에 대중매체에서는 타이응웬 삼성공장에서 일하던 한 여성의 사망 소식을 보도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여성들에게 언론 접촉을 피하도록 지시하였다.

타이응웬 삼성전자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 사망

2016년 9월, 타이응웬 삼성 공장에서 Luu Thi Thanh Tam(22세, Thanh Hoa의 Yen Dinh 출신)이라는 한 여성의 사망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었다. 그녀의 오빠 Luu Van Tien씨에 따르면 “8월 31일 아침과 정오에 Tam이 전화를 걸어 부모님의 건강과 2학년인 남동생의 학업에 대해 물었고, 9월 2일에 집에 오겠다고 했다. 바로 그날 오후에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가족 모두는 충격에 휩싸였으며, 부모님은 이를 믿으실 수 없었다.” Tam의 가족에 따르면 그녀는 매우 건강하였으며 삼성 공장에서 일하기 전에 심각한 질환도 없었다.

9월 7일 경, 베트남 삼성의 대표자는 이렇게 말했다. “Tam양은 2년 계약을 맺었으며 2016년 5월부터 4개월 동안 우리 직원이었다. 그녀는 공장의 클린 사무실에서 일했고 신입 직원으로서 직무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녀의 주업무는 직원들의 의복과 제복을 클린 사무실로 나르는 일이었다. 우리 직원들은 채용될 때와 채용 후 매년 건강진단을 받는다.”

10월 14일, 포엔시(타이응웬 성) 경찰 조사는 Tam양의 사망이 심근염(심장 근육의 염증)이라고 결론지었다. 심근염의 원인에는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 역질환, 환경상의 독성물질, 그리고 약물 부작용 등이 있다. Tam양의 자세한 상황은 분명하지 않은데, 과로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조사에 의하면 8월 31일 오후 2시 Tam양은 타이응웬성에 있는 베트남 삼성전자(SEVT) 클린룸에서 일하던 중에 두통이 있었다. 그녀는 사내 의료 센터에 보내져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같은 날 오후 4시 경, Tam양은 허약 증세를 보여 응급 치료를 위해 91군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불행히도 그날 오후 5:30에 사망하였다.

포엔 시 경찰 조사팀은 국립부검연구소에 Tam양의 진단과 조직 표본에 대한 독성학적 분석을 의뢰하였고, 이 건은 추가 조사를 위하여 타이응웬성의 경찰국 범죄기술부로 이관되었다. 국립부검연구소에서는 Tam양의 조직표본에서 독성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는데, 다만 어떤 물질들이 측정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타이응웬성 경찰국 범죄기술부는 Tam양이 심근염으로 사망하였으며 형사 사건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Tam양의 시신은 지방 풍습에 따라 가족들이 매장하였다.

1.7. 연구의 한계

이 연구에서는 가용한 자원을 이용하느라 주로 온라인 자료 수집 도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두 연구 지역의 여성 노동자들 중 소수의 표본과만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그 결과 연구 표본은 전국을 대표하지 못한다. 또한 특정 물질을 포함하여 공장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자료는 사용할 수 없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표본으로 선정된 핵심 전자산업지역 두 곳의 여성 노동자들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온라인 자료 수집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연구들과 통계들이 반영되지 못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는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실제 삶들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베트남 전자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박닌 성의 삼성 공장 모습. 사진출처:

<http://www.dailymail.co.uk/news/article-3836128/InsideSamsung-s-scandal-hit-Hanoi-factory-workers-ea-rn-33-week-install-exploding-batteries-scrapped-Galaxy-Note-7-mobilephone.html>

II. 베트남 전자산업 개괄

II.1. 설립과 발전

베트남에서 전자산업이 30년 이상 존재하긴 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베트남 전자산업이 아직 “첫 단계를 밟는 유아기”로 남아있다고 평가한다. 항상 주요 산업으로 여겨져왔지만,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소비재를 단순 조립하는 공장으로, 생산 단계 중 이윤이 가장 적은 단계에 속한다. annex 2에 베트남 전자 산업의 설립과 발전 과정을 연대기순으로 정리해두었다.

베트남 전자산업은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매년 20~30% 평균 성장률을 보였는데, 2011년에는 96% 이상 증가했다. 인텔, 삼성 전자, 캐논, 노키아 등 여러 해외 주요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베트남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2012년에만 전자 산업은 수출액

(export value) 229억달러가 넘어,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18%를 차지했다. 처음으로, 전자제품이 원유를 제치고 최고 수출 품목이 된 것이다. 수출된 전자제품에는 예비 부품, 컴퓨터, 전자 기기, 통신기기, 하드웨어장치 등이 포함된다.

2007년 1월 1일, 베트남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식 가입국이 된 이후, 전자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우대 정책은 베트남의 WTO 가입에 따라 철폐되었다. 일부 FDI(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이 도산하고, 생산을 중단하거나 상업과 서비스 영역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면서 새로운 해외 투자가 베트남으로 흘러들어오기도 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대한민국), 인텔(미국), 일본전산(Nidec, 일본), 폭스콘(대만), 메이콤(일본), 노키아(핀란드) 등 주요 전자산업 대기업들의 투자가 포함된다. 이런 대기업들의 투자 프로젝트가 베트남 전자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 자본 규모를 1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시켰다.



삼성 박닌 공장의 점심시간. 대부분 20대 여성들이다. 사진출처:
<http://www.phamhongphuoc.net/2013/07/10/nhung-co-gai-xuan-thi-samsung-bac-ninh/>

현재 베트남 전자산업에는 약 1,021 개의 회사가 있고, 연평균 30~4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통계청(General Statistics Office)에 따르면, 2013년 처음으로 전자산업 수출이 베트남의 핵심 산업인 의류산업을 추월했다.(GSO, 2014) 현재까지 전자산업은 수출에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GSO, 2014) 2015년에는 전화기, 컴퓨터, 기타 기기를 합친 베트남 전자산업 총 수익이 460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6년에는 전자산업의 수출액이 급격히 증가해 530억 달러가 되었다. 여전히 다른 관련 산업 중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베트남은 발전 가능성이 커, 세계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최적의 입지, ‘건설 부지’로 각광 받고 있다.” 정보통신부 정보기술과장 (Dantri, 2017)

핵심 산업으로 대우받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대규모로 유치하고, 수출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사실 베트남 전자산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전체 하드웨어와 전자산업 매출액의 90%는 IT 산업인데, 외국인 직접 투자기업이나 국내 기업 대부분은 조립과 무역 서비스에 집중돼 있다.



대개 여성으로 이루어진 노동자들은 근무시간 내내 서서 일한다. 사진출처:

<http://www.thanhniennews.com/business/vietnam-inherits-factories-from-manufacturers-fleeing-china-36771.html>

II.2. 베트남 전자산업의 작업 조건

정보통신부 정보기술과에 따르면, 현재 전자산업은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 1,000개 이상의 기업이 441,000 명을 고용하고 있고, 이는 2005년 이후 7배 성장한 규모다. “전자산업이 경제통합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공급 사 실 밖에 있다.” VCCI 의장 Vu Tien Loc의 말이다. ILO의 보고서 역시 현재 베트남 100대 전자 회사 중 99개가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대 전자 회사의 다수는 일본 기업이고, 그 뒤를 대한민국이 따르고 있다. 이 20대 기업이 전체 산업 노동력의 절반을 고용하고 있다.

2016년 노동보건사회부와 ILO의 조사에 따르면, “이 산업의 하위 부분을 구성하는 노동자의 80% 가량은 조립 라인에서 일하며, 생산품에 부가가치를 별로 생산하지 못 하는, 여성 노동자들이다. 여성들은 대부분 기술직이나 관리직을 차지하지는 못 한다. 그리고 전자산업 내 상위 관리자 지위는 외국인들이 차지한다.” (노동보건사회부, 2016)

정부 보고서는 과도한 초과근무가 산재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너무 많은 초과근무는 전자회사에서 노동자들의 사고를 발생시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보고서는 또한 직업 안전 보건에 대한 훈련 부족, 개인보호구 부족, 사업주의 노동 환경 개선 방안 도입 실패 등도 사고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 1대 가격이 미국에서는 670~825 달러다. 반면, 그 폰을 조립하는 여성 노동자의 월 급여는 650만 베트남동(280 달러)이다. 삼성 베트남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는 하루에 휴대폰 200대를 조립해야 한다는 할당량을 부여받는다.

전국 17개 전자 제조, 조립 회사에 대한 노동보건사회부 감독관들의 초기 조사에서 많은 노동 안전 법률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노동시간, 휴식시간 규정 위반이 가장 흔했고, 이는 주로 관리자나 다른 회사로부터의 생산 지시 때문이었다. 17개 전자 회사 중 두 곳은 가장 바쁜 시기에는 한 달에 100시간 이상의 초과 노동을 강요했다. 다른 2개 회사에서도 월 60시간의 초과 노동을 시켰고, 다른 한 회사에서는 월 50시간의 초과 노동을 시켰다.

베트남 법은 월 30시간 이상, 그리고 연간 200시간 이상의 초과 노동을 금지한다. 따라서 위 조사 결과는 노동보건사회부가 점검한 전자 회사 중 거의 1/3 가량이 노동시간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뜻이다. 생산 공장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노동시간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줄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전화기 조립 공장에서는 노동자가 생산 라인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로 길게 하기 위해, 화장실에 가려면 “화장실 카드”를 요청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통제되고 있다.

정부 조사에서는 또 알콜성 세제, 부식성 세제, 황산 등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손상이나 질병 사례를 정부에 보고한 회사는 일부에 불과하다. 정부는 또, 전자산업에서의 심각한 건강 영향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다고도 인정했다: “전자산업의 노동자 안전 관련 문제는 전자파, 방사선, 화학물질 노출로 인해 심장 마비나 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납 중독과 직업병 사례가 실제 있긴 했지만, 그 외에는 이를 증명할 통계 자료가 없는 추론일 뿐이다.”(노동보건사회부, 2016)

개발과통합센터(CDI)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 ‘베트남 전자 생산 및 조립 공장 노동 조건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초기 평가’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여성 노동자 C :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관리자에게 몹시 혼난다. 우리 공장에서는 품질이 최우선이다. 생산 속도를 내기 위해 우리는 다른 일도 많이 해야 했다. 특히 우리 작업장의 인력을 감축했을 때는 더했다. 예를 들어, 예전에 3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하다가 지금은 혼자서 한다.”

“전자제품 생산, 조립 산업의 노동 조건은 매우 힘들고 유해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배터리와 마이크로칩 일부 생산 단계는 특히 더 힘들고 유해하다.”

이 연구 보고서는 전자산업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당장 나타나는 피로나 생식 건강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삼성 박닌(Bac Ninh) 공장에서 2012년 5월 벌어진 집단 실신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그 사고로 많은 노동자들이 크게 걱정했고, 정부 당국이 해당 공장의 산업 안전 보건 실태를 점검해야만 했다. 2013년 6월, 생산 공장에서는

7개월 된 태아를 포함한 6건의 유산과 선천 기형으로 인한 한 건의 임신 중절 사례가 드러났다. 연구 기간 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업무 자세로 인한 골관절염, 이명, 시력 저하 등으로 자주 고통받는다고 보고했다.(CDI, 2014)

전자제품 조립 작업이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베트남에서 시행한 심층 조사 연구는 없다.

일반 대중들에게는 전자산업은 덜 위험하거나 “청정사업”으로 보인다. 깨끗하고, 공기조절장치로 운영되는 환경이 이상적이고 안전한 환경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전자제품 생산 과정에서 화학물질 노출 위험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여기서의 클린은 제품을 위한 것이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Le Truong Giang(환경 노동 조건 연구센터)의 이해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정부의 이 분야 정책적 접근 방향을 규정하는 일차적 법률 문건들은 노동환경이나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2020년까지의 전자산업육성계획’에 대한 수상령 1290/QD-TTg에 따르면, 2030년까지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고 있다.

“전자산업 생산품의 제조 지원을 위해, 여러 표준과 기술적 규제들을 검토, 개정, 완벽한다.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 전자 산업의 생산품들의 품질을 개선하고, 명망을 유지하기 위해, 표준과 기술적 규제들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발전시킨다.

여성 노동자 A : “우리 중 몇 명은 일하는 내내 서 있고, 나머지는 두 개의 생산 라인 끝과 끝 사이를 왔다갔다 해야 한다. 짧고 비혼인 여성에게는 걱정거리가 아니지만, 3개월된 임신부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이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하루 종일 왔다갔다 해야 하니 많은 사람들이 유산하게 된다.”

이 중요한 산업에 대한 주요 정책 문서임에도, 이 문서에는 노동 환경이나 노동자 안전보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II.3. 국제 이슈가 된 전자산업 유해화학물질

2006년, 100개 이상의 정부가 모여 국제 화학물질 관리 전략(SAICM) 협약을 맺었다. 이는 화학물질 안전을 촉진하기 위해 UN 환경위원회가 주도한 국제 정책 협약이다. 3년 후, 각 정부는 전기전자 제품의 생애주기별 유해화학물질 문제를 각별한 실천이 필요한 주요 정책 과제로 삼는데 합의했다. 2011년 UN 주도로 32개 정부(베트남도 포함되어 있다), 전자산업 대표자, 공공의 이해를 대표하는 NGO들로 전문가 그룹이 구성됐다. 이 전문가 그룹은 전자 제품을 생산하려면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 정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종합적인 권고를 만들었다. 베트남 정부는 2012년과 2015년(가장 최근의 회의임)에 열린 국제 화학물질 관리 전략(SAICM) 협약 회의에 참가하고 나서야, 겨우 이 권고들을 활용할 용기를 내게 되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결정은 베트남 전자 산업에 매우 적절한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한 더 많은 자료는, Annex 3번을 참고하라.

Ⅲ. 베트남 전자 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경험 : 질적 연구

Ⅲ.1. 인터뷰 참가자 일반 정보

인터뷰 참가자들의 평균 나이는 25세다. 가장 젊은 노동자는 20세(1997년생)이고, 가장 나이가 많은 노동자는 31세(1986년생)이었다. 전자산업에서 가장 오래 일한 노동자는 5년 일했고, 자신의 조장이 되었다. 가장 젊은 노동자는 노동 경험이 1년이었다.

회사가 여러 공장, 작업장, 생산 라인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회사 전체 노동자 수를 몰랐고, 자기가 속한 작업장의 정확한 인원도 몰랐다. 노동자들은 자기 생산 라인(최소 작업 단위)이 보통 10~14명으로 구성된다는 것 정도를 알고 있었다.



삼성 베트남 공장의 점심시간. 사진출처:

<http://vneconomicstimes.com.vn/article/corporate/samsung-strugglesto-house-workers>

인터뷰 참가자들은 모두, 공장이 있는 지역과 다른 지역 출신이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삼성 공장 도시로 일하러 온 단기 이주민이었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 여성 노동자들에 따르면, 회사에서 급하게 일손이 필요할 때면, 삼성 전자는 중학교 졸업자들 중에서도 직원을 뽑기도 했다. 하지만 남성 노동자들은 고졸 이상의 학력자 중에서만 모집했다.

“회사에서 중학교 졸업한 여성 지원자 중에도 직원을 뽑았다는 걸 알게 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졸자 중에서만 선발한다. 회사에서 노동자가 부족하면 중졸자 중에도 뽑을 것이다. 그래도, 중졸자인 남성 지원자는 절대 뽑히지 않는다. 남성 직원 선발은 매우 엄격해서, 면접을 여러 차례 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들 대부분이 떨어지게 된다.” (심층인터뷰 (IDI).05)

인터뷰 참가자들은 모두 작업장 근처에 방을 임대해 살고 있었다. 일부는 직원 기숙사에서 살았던 적도 있었지만, 나중에 모두 기숙사를 나왔다. 기숙사가 “시간을 너무 엄격하게 통제해서 불편”했기 때문이었다. 기숙사에 살고 싶기도 했지만 자리가 안 난 경우도 있었다.

인터뷰 참가자들에 따르면, 삼성 전자의 직원 채용 심사 과정은 매우 짧고 쉽다. 회사는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 없는 신규 여성 고교 졸업생 중에서 신입 직원을 대규모로 끌어들이고 있다.

“삼성은 산업단지나 시·군·구나 읍·면·동 지자체에서 선발한다.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살고 있는 구직자는 지원서 파일을 보내고, 시·군·구(공식 거주지)에서 면접을 볼 수 있다. 직원으로 뽑히고 나면, 신규 노동자들은 하노이로 가서 몇 주 혹은 한 달 간 연수를 받는다. 처음에는 2년짜리 근로계약을 맺는다. 2년이 지나고, 일을 계속하고 싶으면 지원서를 낸다. 지원서를 낸 사람들이 회사의 조건에 맞으면, 3년짜리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노동자들이 원하면, 무기한의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IDI.11)

모든 인터뷰 참여자들이 계약 기간과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계약 규칙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아무도 정확한 근로 계약 기간을 기억하지 못 했다. 놀랍게도, 모든 노동자가 계약서는 회사가 가지고 있고, 본인들은 사본을 받지 못 했다고 말했다. 이는 베트남 노동법 위반이다. 베트남 노동법의 III장 근로계약의 16조 1항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2매 작성하여 한 장은 고용주가 한 장은 노동자가 보관해야 한다.” CP, 2015)

인터뷰 참가자 절반 이상이 기혼자로, 삼성으로 일하러 오기 전에 이미 아이가 있었다. 하지만 아이가 있는 모든 여성들이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었다. 아이들은 다른 지역이나 다른 도시에서 조부모들과 지내고 있다.

노동자들은 채용 과정 동안 기혼자 혹은 자녀가 있는 여성이라고 해서, 비혼 여성이나 자녀가 없는 여성과 달리 차별받지는 않았다고 했다.

연구 기간 동안 만난 모든 인터뷰 참가자들은 휴대폰 케이스와 화면을 만드는 일을 했고, 조립, 포장, 메인 생산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 B : “연수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노동자가 부족할 때는, 연수 기간이 1주일도 안 되어 작업장으로 보내지기도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 1주일 이상 연수를 받는다.”

노동자들은 모두 꼬박 교대 근무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신한 노동자도 교대 근무를 해야 했다. 대신 쉬는 시간을 갖는 게 허용됐다. 그러나 대부분은 쉬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삼성 측에서, 너무 많이 쉬는 것 같다고 생각되면 급여를 공제하기 때문이다.

III.2. 노동 시간

노동자들은 팀으로 일하거나, 교대로 일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 팀으로 일하는 것도 교대를 해야 한다. 우리가 인터뷰한 모든 노동자들은 두 가지 시간표를 모두 겪어봤다. 노동자가 어떤 시간표에 따라 일하게 될지는 삼성이 결정했다.

교대는 8시간씩 하는 3조로 구성되었다. 하지만, 생산 마감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24시간 가동이 필요하다. 보통, 교대 일정은 4일 일하고 2일 쉬는 형태다. 삼성에서는 보통 4일 주간근무 후 2일 쉬는 시간표를 2 회하고, 4일 야간 근무 후 2일 쉬는 시간표를 2회 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교대 근무 시 주말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 근무 일정이 있어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 한다. 대신 큰 명절 때 일하게 되면 급여의 300%를 받는다.

여성 노동자 B는 그저 근무 중 쉬는 시간이 좀더 길기를 바랄 뿐이다. “음료수 마시거나 잠깐 쉬러 매점에 갈 수는 있다. 삼성 규정 때문에 졸려도 누우면 절대 안되고 앉아서만 잘 수 있다.”	팀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평일에 5일 일한다. 토요일은 한 달에 2번은 일하고, 2번은 쉰다.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토요일에는 평일에 비해 200%, 큰 명절 때는 평일에 비해 300%의 급여를 지급한다. 이런 날 일하는 것은 자율이지만, 회사가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할 때면 “독려한다.”
---	--

휴식 시간, 점심 시간은 시기에 따라 바뀐다. 시간은 일정하지만, 시각은 관리자가 결정한다.

주야간 교대 근무 시간표 예시

일, 월, 화, 수	목,금	토, 일, 월, 화	수,목	금,토,일,월
오후8시 시작	휴무	오전8시 시작	휴무	오후8시 시작
오후10시 쉬는시간 10분		오전 10시 쉬는시간 10분		오후10시 쉬는시간 10분
11:30~00:20 중식		11:30~12:20 중식		11:30~00:20 중식
새벽2시 쉬는 시간 10분		오후 2시 쉬는시간 10분		새벽2시 쉬는 시간 10분
새벽 5시 정규 근무 종료		오후5시 정규 근무 종료		새벽 5시 정규 근무 종료
오전 7시 10분 잔업 후 식사		오후 7시 10분 잔업 후 식사		오전 7시 10분 잔업 후 식사
오전 8시 종료		오후 8시 종료		오전 8시 종료

팀 교대 근무시간표 예시

일	월~금	토	일	월~금	토
휴무	오전8시 시작	오전8시 시작	휴무	오전8시 시작	휴무
	오전10시 쉬는 시간 10분	오전10시 쉬는 시간 10분		오전10시 쉬는 시간 10분	
	11:30~12:20 중식	11:30~12:20 중식		11:30~12:20 중식	
	오후1시 쉬는 시간 10분	오후1시 쉬는 시간 10분		오후1시 쉬는 시간 10분	
	오후 6시 35분 정규 근무 종료	오후 6시 35분 정규 근무 종료		오후 6시 35분 정규 근무 종료	
	오후 7시 10분 잔업 저녁 식사	오후 7시 10분 잔업 저녁 식사		오후 7시 10분 잔업 저녁 식사	
	오후 8시 종료	오후 8시 종료		오후 8시 종료	

III.3. 작업 유형

연구에서 만난 여성 노동자들이 가장 흔히 하는 2가지 업무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생산 라인 : 여기서는 각각의 여성 노동자들이 전체 조립 과정 중 한 부분을 책임진다. 기본적으로 부품을



삼성 베트남 공장에서의 휴대전화 조립. 사진출처:
<http://samsungrumors.net/one-tells-samsung-town-vietnam/>

연결하는 일이다. 2) 제품 검사 : 휴대폰 케이스, 유리 외관 등에 있는 흠집을 찾아내는 일이다. 휴대폰 모델에 따라서, 노동자들이 하루에 끝마쳐야 하는 휴대폰 숫자가 결정된다. 보통 노동자들은 평균 하루에 휴대전화 2,000대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은 작업을 해야 하는 날도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오후 5시(오후 쉬는 시간이다)에 원래 주어진 2,000대를 마무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부속물이 추가로

오고, 그러면 300~400개를 더 만들어야 한다.(이러면 보통 오후 6시 30분이 된다.) 이는 시간당 250대, 혹은 분당 4대 정도를 조립한다는 뜻이다. 2013년 삼성은 브라질에서 노동자들에게 핸드폰 한 대를 32초마다 조립하라고(즉 분당 2대 풀이다)요구했다는 이유로, 1억 8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The Inquirer, 2013) 베트남 노동자들은 그보다 2배 더 빠르게 일하는데, 삼성은 여기서는 벌금도 내지 않고 있다.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교대근무를 한다.

휴대폰 공장에서는 하는 다른 업무에는 플라스틱 덮개 생산, 화면 생산, 자판 생산, 박스 포장 생산 등이 있다. (Ngo, Asia Monitor Resource Center, 2013). 이런 업무들에는 인쇄, 도장, 인쇄용 잉크 유기용제 사용, 가열 단계, 세척제 사용, 금속 코팅을 위한 가스 처리 등이 포함된다. CDI의 초기 조사에서 코팅 배합 부서의 공기질에 대한 노동자의 언급이 기록돼 있다.

“작업장 안 공기는 오염돼 있고 페인트 냄새가 진동한다. 그래도 관리자들은 유해하지 않다고만 한다. 노동자들이 작업 환경 오염에 대해 탄원서를 올려서 제기된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렸다.”(Ngo, H., 2013)

Ⅲ.4. 작업 환경에 대한 인식

다수의 인터뷰 참가자들은 만족해했다. 그들의 일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사회 보험에 가입돼 있고, 급여는 사회 평균 임금과 비슷했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회사의 의사들이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해 주는 것을 좋아했고,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신,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도 만족했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그다지 힘들지 않고, 작업장은 깨끗하다고 말했다.

일부 여성들은 작업 환경에 대해서 우려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발언 내용은 매우 일반적이고 모호했다.

“나는 삼성에서 일하면 독성 물질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공장에 일하러 오기 전에 부모님께 만일 가서 일하는 게 불가능하다 싶으면 돌아오겠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또 동시에, 만일 내가 독성 물질에 노출된다면,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도 노출될 것이고,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 아마 별 문제 없을 거라고도 생각했다. 생산 완료 제품 작업장에서 일할 때면, 도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자기장 문을 매일 통과해야 한다. 최근 정기 건강 검진 결과도 좋았다. 나중에 아프게 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지금 건강하다. 우리는 모두 자기장 문을 걱정한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른다. 그래도 그 문이 들고 나는 사람을 모두 체크해서 이런 소문이 퍼졌다.” IDI.06

작업장은 소음이 매우 심하다. 일부 인터뷰 참가자들은 일을 시작하고 얼마 뒤에는 소음에 적응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는 소음 때문에 늘 불편함을 느낀다.

“작업장은 항상 시끄럽다. 소음은 항상 82 데시벨을 넘는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 말하거나 혼내는 소리들 때문이다. 교대근무 내내 서서 일해야 한다. 나는 기계를 운전하기 위해, 벽돌 2개 위에 서서 일한다.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시간에 나는 강사에게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강사는 몸이 안 좋을 때는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다. 하지만 만일 내가 주저 앉았는데 기계가 계속 돌아간다면 기계가 내 머리를 칠 것이다. 한번은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주저 앉았다가 몇 분 뒤에 다시 일어나기도 했다.” - IDI.40

유해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

삼성 산업단지 가까이에 사는 지역 주민들은 삼성을 위험한 작업 공간으로 본다. “삼성에서 일하는 건 아주 위험하다.” 지역 주민들은 특히 불임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생식 건강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연구자들이 더 캐물자 지역 주민들은 2012년 한 신문이 “삼성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난소 위축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기사를 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이 기사 때문에, 확실히 많은 노동자들이 퇴사하기도 했다. (Cường, 2012)

그 기사가 발행된 후, 삼성 경영진은 박닌 지역 보건부의 직업건강환경검진센터와 직업보건환경연구소에 공장 출입 시스템의 전자기장과 방사능 수준을 검사해달라고 요청했다. 2012년 1월 10일, 박닌 지역 보건부의 직업건강환경검진센터는 공식 문서(No. 02/CV-2012)를 통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냈다.

“결론적으로 작업장문과 주요 자기장 출입문에서 측정된 전자기장과 방사능 수치는 TCVN 3718- 2005와 TCVN 6561- 1999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허용 가능 수치이고, 베트남 삼성 전기의 노동자나 다른 고용인들의 생식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건부 소속 직업 및 환경보건연구소가 시행한 검진 결과도 보고서에 첨부돼 있다.

“노출기준(TCVN 6561-1999)과 비교했을 때, 전자기장과 방사능 측정치는 모든 지점에서 허용 가능 수치이다.”

그러나, 각각의 측정치는 보고되어 있지 않다. 이 문제와 관련한 더 자세한 논의는, 아래 방사선과 화학물질 노출 부분을 참고하라.

Ⅲ.5. 인터뷰 참가자들의 건강

1년에 한 번,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건강 검진을 받는다.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은, 특별한 정기 건강검진을 받는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콧물이나 다른 질병들을 “기후가 바뀌어서”라고 생각했다. 작업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았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대부분 확실히 “피로”하다고 답하고, 교대 근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누구도 이를 건강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교대근무 때문에 피로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몸은 주간 근무에서 야간 근무로 바뀌고 나서 곧바로 적응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나는 야간 근무 전에는 하루 종일 자야만 한다. 야간에 일하면 더 피곤하다. 일을 마친 뒤 낮에 잘 수 있지만, 그 전에 밤에 자는 것만 못하다. 첫 해에는 늘 그런 몸 상태였고, 지금도 똑같다. 동료들은 점점 적응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 - IDI.23



베트남 삼성공장에서는 서서 휴대폰을 조립한다. 출처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41111000954>

45명의 인터뷰 참여 노동자들은 모두 일하는 동안 현기증이 나거나 어지러움을 느낀 적이 있었다. 이들 모두가 주간 근무에서 야간 근무로 변할 때의 수면 부족 탓이라고 했다. 자유시간이 더 많아지니 너무 오래 밖에 나다니거나 충분히 잠을 자지 않고, 그 때문에 근무 중 피로해서 쓰러지거나 어지러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아픈 노동자들은 치료와 요양을 위해 회사 건강 센터로 보내진다.

“한번은 고열이 나서, 작업장 감독을 불렀다. 그가 회사 관리자에게 연락해서, 구급차가 와서 나를 싣고 회사 건강센터로 갔다. 거기서 내게 응급 처치를 해 주고, 약을 투여한 뒤, 병원으로 보내줬다. 몸이 회복된 후, 집으로 혼자 갈 수 있었다. 나중에는 소화기계에 문제가 생겼다. 교대 근무에서 주간 근무에서 야간 근무로 바뀌고 나서 종종 복통으로 고생한다. 내 생각에는, 주간 근무 때는 점심을 먹는데, 야간 근무 때는 자정에 저녁을 먹고 낮에 계속 자느라 아무 것도 못 먹는 것에 내 위가 적응을 못 해서 그런 것 같다. 너무 아프다 싶으면, 쉬겠다고 요청한다. 정상적으로는 통증이 4~5분이면 멈췄다가 30분쯤 뒤에 다시 아파진다. 때로 둔한 통증이면, 그냥 계속 일한다.” - IDI.34

여성 노동자들은 “근시”(가까이 있는 것만 보임), “다리 부종”, 아름다움을 잃거나 소화기계 문제, 관절염, 근골격계문제 등도 언급했다.

“나는 지금까지 1년 넘게 근시 때문에 힘들다. 계속 같은 거리에 시력을 집중하게 만드는 일 때문인 것 같다. 예를 들어, 나는 계속 밀려드는 생산품을 검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생산량에 따라 급여를 받기 때문에, 일에서 시야를 돌려, 다른 거리의 사물에 눈을 맞출 시간이 없다. 그러니 시력이 영향을 받는 것 같다.” - IDI. 39

“우리 생산 라인에 있는 노동자 중에서 내가 제일 허약하다. 자주 코피가 난다. 출혈이 꽤 오래 가기도 한다. 의사 말로는 그저 만성 부비동염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 혈관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왜 이렇게 자주 코피가 나는 건지 잘 모르겠다.” - IDI. 03

임신한 노동자들은 “특별 대우”를 받는다. 그들은 분리된 식수통을 사용하고, 좀 더 가벼운 일을 한다. 임신 기간 중 7.8번째 달에는 50%의 급여를 받고 휴가를 쓸 수 있다. 임신한 여성은 임신 9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출산 휴가를 받는다. 이 때 급여는 법에 따라 지급된다. 그러나 임신한 노동자들도 전체 교대근무를 모두 수행한다. 쉬는 시간을 더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신 노동자들은 쉬는 시간을 더 가지지 않으려고 한다. 너무 많은 시간을 쉬다고 판단한 경우, 삼성에서 그들의 급여에서 공제하기 때문이다. 유산에 대해 한 인터뷰 참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이 젊다면 그건(교대근무) 매우 정상적인 일이다. 하지만 노동자가 임신을 해서 임신 초기를 보낼 때라면 이걸 아주 어려운 일이 된다. 유산이 많이 발생한다.”-IDI.09

III.6. 안전 보건 우려지점

인터뷰 동안, 노동자들은 작업 조건과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 지점을 제기했다. 이 노동자들의 경험은 현재 규제 정책 하에서의 베트남 노동 조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 앞으로 정책과 연구가 강화돼야 할 분야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교대근무

국제암연구소(IARC, 2007)는 야간 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봤다. 교대근무는 유방암과 심장 질환 및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IARC, 2010) 연구들에 따르면, 교대 근무는 그 외에도 수면 장애, 작업 중 사고, 조산, 소화기계 질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등과 같은 건강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대근무는 또 노동자들의 가족과 사회 생활을 방해한다.

서서 일하기

오랜 시간 동안 서서 일하는 것은 근골격계 질환, 만성 정맥 부전, 조산, 자연유산, 경동맥죽상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다.(Omar, 2011) 거의 모든 과학 문헌이 노동자들에게 일하는 동안 “움직일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하는 동안 잠깐 걸어서 돌아다니거나, 노동자가 서고 앉고 기대는 자세들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음 수준

여성 노동자들은 공장 내 소음 수준이 보통 82 데시벨을 넘는다고 지적한다. 이런 수준의 소음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베트남이나 다른 여러 국가들의 규제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다. 베트남에는 소음 수준을 규제하는 2개의 법적 근거가 있다. 하나는 70 데시벨, 하나는 85 데시벨로 규제하고 있다(MONRE, 2010) (MOH, 2016) 이는 EU에서 근무 일 평균 소음을 80 데시벨로 규제하는 것과 일관된다. (유럽의회, 2003) 우리 연구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높은 소음 수준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명, 보청기로도 교정될 수 없는 영구적인 청력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OSHA, 2017)

유산

인터뷰 참여자들은 유산이 “매우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여성 건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몇몇 노동자들은 실제 유산 사례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한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중 일부는 2개의 생산 라인 끝을 계속 왔다갔다 해야 하고, 일부는 일하는 내내 서있어야 한다. 젊거나 비혼인 여성에게 이는 별 일이 아니지만, 임신 3개월 짜인 노동자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이다. 계속 서 있거나, 하루 종일 왔다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산으로 고통받는다.”

다른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이 젊다면 그건 매우 정상적인 일이다. 하지만 노동자가 임신을 해서 임신 초기를 보낼 때라면 이건 아주 어려운 일이 된다. 유산이 많이 발생한다.”

대한민국에서 실시된 역학 연구 결과, 반도체 가공 공정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자연 유산, 선천기형, 불임과 같은 생식 독성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근거가 나타나기도 했다.(Kim MH et al, 2014) 후속 연구에서, 마이크로전자산업에서 일하는 20~39세의 여성 노동자들에게서 자연 유산과 생리불순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Kim I et al, 2015) 작업 조건과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높은 자연유산율의 원인을 가늠해 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번 연구에서 만난

여성 노동자들은 본인들이 업무 중 화학물질을 다루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노동자들은 흔히 세척제는 화학 물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같은 공장 환경 내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명백히 높은 유산율의 원인은 불확실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방사선과 화학물질 노출

베트남에서 현재 적용 중인 방사선 표준은 1998년에 개발된 것이며 다른 국가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라디오파 방사선 노출에 관한 베트남 표준 TCVN 3718-1: 2005는 인체가 가장 효율적으로 라디오파 에너지를 흡수하는 범위인 3kHz ~ 300GHz 범위의 주파수에 대해 최고 노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기지국(Base Transceiver Station) 기준 에너지 밀도(S)는 $2W/m^2$ 이다. 이 기준은 1998년의 가이드라인과 일치하지만, 최신의 과학적 발견에 기반해 제안된 예방적인 노출 기준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BioInitiative, 2012)

앞서 언급했던 난소 위축에 대한 언론 보도는, 작업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노동자들이 했던 얘기들과는 반대되는 정보다.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는 자신들과는 달리 “대개 남성들이 첨단기술 작업장이나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일한다”고 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업무 환경은 완전히 안전하다며, 자신들은 “화학물질”에 노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세척제가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든지, 공장 내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어떤 노동자들은 특히 암이나 불임과 같은 부정적인 건강 영향에 대해 들어봤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이런 부정적인 영향은 장기간 일했을 때 생긴다. 단 기간 일한 노동자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대전화 공장에는 화학물질이 포함된 페인트, 잉크, 세척제를 사용하는 업무들이 있다. 작업 단계에는 가열, 금속 코팅을 위한 가스 작업, 도장, 레이저 식각, 절단 등이 있고, 이런 모든 작업 단계는 화학물질 방출 가능성이 있다. 일부 공장에서는 노말렉산과 같이 세척에 사용되는 유기용제에 노동자들이 중독되기도 했다. (China Labor Watch, 2012)

현대전화은 그 자체에 다양한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화학 산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스마트폰 한 대는 최대 62가지 서로 다른 금속으로 구성된다.”(ACS, 2015) 현대전화에 대한 2012년 연구는, 독성 난연재 때문에 수은, 납, 브롬이, PVC 플라스틱 사용 때문에 염소를 검출했다.(The Ecology Center, 2011)

Ⅲ.7. 노동시간 이외의 삶

야간 교대근무가 끝나면 노동자들은 보통 회사에서나, 거리로 나가 아침 식사를 한다. 집에 들어가면, 개인 위생을 챙기고 TV를 본다. 보통 오전 9~10시쯤 자러 가서 오후 5~6시에 일어난다. 기상 후에는 다시 개인 위생을 챙기고, 저녁 식사를 하고, 오후 7시에 출근하러 나간다. 이럴 때 보통 점심은 거른다. 낮 근무자들의 활동도 비슷하다. 시간만 밤낮이 바뀔 뿐이다. 주말이나 명절에, 노동자들은 자주 친구들과 함께 모여 먹고 이야기 나눈다.

기혼 노동자들은 명절 때나 주야 교대가 바뀌는 이들의 휴무일에 가족들을 보러 자주 간다. 임

대 주택에서는 요리를 할 수 있지만, 회사 기숙사에서는 요리가 금지다. 삼성 전자 베트남 공장은 직원 기숙사를 많이 지었다. 남성과 여성 노동자는 엄격한 통제에 따라, 각기 분리된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기숙사에 출입할 때는 출입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외부인은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고, 친척들도 현관까지만 방문이 가능하다. 기숙사는 비혼 노동자들에게만 허용되고, 방 하나에 보통 6~8명이 기거한다. 이 룸메이트들이 서로 다른 교대 근무조에 속하면, 이 때문에 수면에 방해를 받기도 한다.



여러 노동자들이 밀집해 사용하는 삼성 박닌공장 노동자들의 기숙사. 이들이 서로 다른 교대조로 일할 경우 수면을 방해받을 수 있다. 사진출처 <http://genk.vn/tin-ict/dot-nhap-nha-may-samsung-o-bac-ninh-20130711172709955.chn>

III.8. 작업장 위계, 꾸짖음, 압박

삼성 베트남 공장에는 8단계의 위계가 있다. 6번째 단계는 보통 남성 관리자들이고, 7번째 단계에서는 남성이나 여성이 관리한다. 8번째이자 가장 낮은 단계는 거의 완전히 여성 노동자들로 채워진다. 전체 노동자의 80%는 여성이다.

생산 마감이 닳쳐, 노동시간이 연장될 때면 분위기는 팽팽해지고 노동자들은 자주 혼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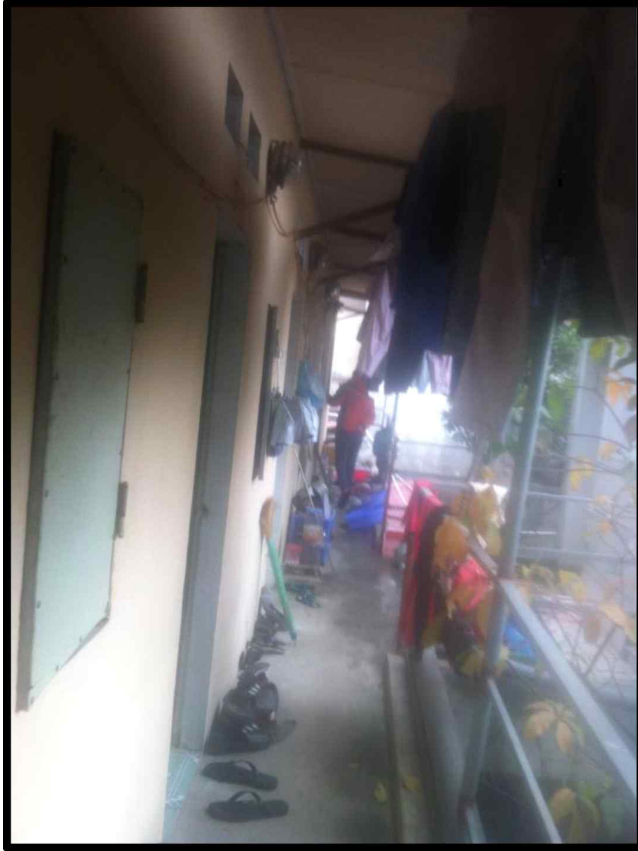
“생산량을 증가시키지 못 하면 혼나거나 비난 받는다. 만일 우리가 충분한 생산품을 만들어내지 못 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소리 지르며 혼낸다. 나는 이미 최선을 다 했는데, 뭘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다. 보통, 우리가 생산량을 늘리지 못 하면 다들 불행하고 슬프게 느낀다. 왜냐하면 추가 교대근무를 해야 하고, 부르는 시간에 언제든지 일하러 와야 하기 때문이다.” -IDI.10

III.9. 미래 계획

일터에서 어떤 변화를 가장 원하는지 물었을 때, 인터뷰 참가자 대부분은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교대근무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응답했다.

“만일 가능하다면, 정해진 시간에 일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건강이 더 좋아질 것 같다.” -IDI.03

인터뷰 참가자 대부분은 특히 젊은 노동자일수록, 전자산업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돈을 모아, 나중에 다른 직장을 구하고 싶어 했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방 하나에서 살고 있는지 문 앞의 샌달 수로 알 수 있다. 사진출처: CGFED

“나를 개발하기 위해 좀 더 공부하고 싶다. 공장 밖에서 일하게 되면, 내가 여기 있을 때 얻지 못 했던 지식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내가 배울 수 있는 일이나 지식이 장차 내게 도움이 될 것이다.” -IDI.10

“여기서 일하는 것이 나의 목표는 아니다. 나는 싫증이 났다. 여기서 일하는 것은 당장 사는 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다. 나중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부모님 근처에서 살고 싶다. 우리 부모님도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지금은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부모님 댁 근처에서 새 직장을 찾거나 내 가게를 열고 싶다.” - IDI.35

결론 및 권고

베트남은 전자 산업에 대해 최고 수준의 허가를 해주었다. 베트남의 수상이 공표한 결정²⁾(Decision No. 1290/QĐ.-TTg)은 2030년까지의 비전을 포함하여 2020년까지의 전자 산업 개발에 대한 액션 플랜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전자 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기초자재생산 분야에 속하고, 현대 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다른 산업 분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전자 산업의 발달은 산업화의 과정을 가속화하고 다른 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발달을 도우며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제공한다.”

전자 산업과 관련하여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이점은 인구의 60%가 생산가능인구(17~60세)라는 점이다. 베트남의 지역적 위치, 급속하고 역동적으로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유리한 점이다. 이에 더하여 베트남은 9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잠재적 소비 시장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은 인근 지역의 이미 발달된 전자 산업으로부터 자본 투자, 기술 이전, 경영 관리나 인적 자원 훈련에 대한 지식을 끌어드릴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외국 자본이 이 분야에서 베트남 기업들과 협력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왔다.

베트남의 전자산업은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했으며 많은 고용 기회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산

2) 법령의 체계는 헌법(HIẾN PHÁP=Constitution)→법률(Law)→정부시행령(Decree)→수상결정(Decision)→시행규칙(Circular) 등의 순서이다.

업의 급속한 성장 속도에 비해 환경이나 노동자의 건강, 안전에 관한 방안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현재 시행중인 법률에는 전자 산업의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전자 사업이 인간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해악이 오랜 기간 동안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는 전자 산업이 베트남 노동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피해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의 건강이라는 주제와 더 연관된다. 왜냐하면 공장 노동자의 80%가 여성인 데에 비해 대부분의 남성들은 관리직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 이 산업의 환경, 안전보건대책, 노동력의 건강 등이 급속한 산업의 성장에 수반하여 나란히 개선되지 않았다. 현재 효력을 갖는 법적 문서들 중에는 전자산업 작업장 안전을 위한 규제가 들어있지 않다.

우리의 연구에서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근무 환경과 일치하는 다양한 신체적 증상들을 호소했지만 흔히 “날씨 변화(changing weather)”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그에 비해 지역 주민들은 공장이 미치는 잠재적 해로운 영향에 대한 걱정을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알아낸 주요 결론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 모든 노동자들은 극도의 피로를 호소하였고, 작업 중 기절하거나 어지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 * 노동자들은 유산이 매우 흔하게 일어났으며, 심지어는 유산을 예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 * 노동자들은 소음 수준이 높은 작업장에서 근무 시간 내내 (8시간~12시간) 서서 작업해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야 교대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다.
- * 임신한 노동자들도 회사가 쉬는 시간에 대한 급여를 제한까봐 보통 근무 시간 내내 서서 작업을 했다.
- *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의 반 이상이 자녀가 있었지만 자녀들은 대부분 다른 동네나 도시에서 조부모와 지냈다.
- * 노동자들은 시력 악화, 코피, 위통, 뼈, 관절, 다리와 관련된 문제를 호소하였다.
- * 노동자들의 삶은 일터 안팎으로 통제 당했다. 휴식 시간은 짧고 제한적이며, 노동자들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특별 통행증을 요청해야 한다. 많은 노동자들이 삼성 기숙사에서 지내는데 한 방에 6~8명이 지내며, 외부인의 방문은 제한된다.
- * 이후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조사가 요구된다. 노동자들은 조립 라인 작업을 화학적 위험이 따르는 작업이라고 여기지 않았지만 개방형 공장 환경에서 다양한 물질을 다루는 다른 노동자들은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베트남의 여성 노동자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이 연구에 근거하여 조사팀은 다음과 같은 권고를 내리고자 한다.

1. 전자 산업은 초과 근무와 관련된 베트남 법을 준수해야하며,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2. 전자 산업은 근로계약서 관련 조항이 있는 베트남 법을 준수해야한다. 삼성-베트남과

같이 이러한 법을 어긴 기업들은 즉시 모든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다시는 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3. 전자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포괄적 규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 규제에는 화학물질, 전자기장, 방사능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된 또 다른 잠재적 피해와 관련된 규제가 포함된다. 노출허용기준은 아이를 양육하는 연령대의 여성을 포함하여 가장 취약한 인구계층을 보호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또한 작업장과 지역 사회 모두를 똑같이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4. 전자 산업은 오염 물질의 방출과 이송에 관련된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이 자료는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해야 한다.

5. 노동자들과 지역 사회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자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공장은 작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 물질을 공개해야 한다.

6.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생산자와 제조자는 작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 물질이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것이어야 하면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법조항의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요구, 건강이 좋지 않은 젊은 여성 노동자들의 취약성을 고려했을 때 근무 시간 및 근무 일정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8.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와 협력하여 전자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모으고 보고해야 한다. 기업, 노동조합을 비롯한 다른 행위자들도 이 과정에 동참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9. 베트남 전자산업 내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한 독립적이고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해 이 산업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연구를 계획하고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성별로 분류된 자료를 핵심 요소로 삼아야 한다.

10. 언론과 대중에게 화학물질안전에 대한 정보와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화학 물질로 인한 피해 사례 및 2011년 비엔나 전문가 그룹 미팅에서 나온 권고를 포함한 국제화학물질관리 전략(SAICM)의 전자 산업에 대한 권고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11. 전자 산업에 대한 연구는 부적절한 기술, 공정, 금지된 화학 물질이 환경 저하를 유발하는지 혹은 다른 국가에서 사람에게 해롭다고 판명된 기술, 공정, 화학 물질이 베트남으로 옮겨왔는지 밝혀야 한다. 여기에 이중 잣대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12. 베트남 전자사업 내 하청업체들도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기업이 기술을 이전하거나 하청업자를 고용할 때 그 과정이나 결과물은 환경적으로 안전해야 하며 원청은 계약을 맺기 전에 하청업체가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주변의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을만한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13.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주요협약 87호와 98호에 나온 것과 같이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만 한다.

부록 1: 노동자들의 이야기

이야기 1

“A”는 6년 전에 남편과 이혼했다. 딸 하나가 있는데 현재 A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저는 엄마도 돌봐야 해요. 부모님도 이혼을 하셔서 엄마의 상황이 저랑 비슷하거든요. 이전엔 남동생과 엄마가 같이 살았는데, 남동생이 결혼을 하고 독립을 하면서 지금은 엄마와 제 딸 둘이서만 살고 있어요.”

삼성에서 일하기 전 A는 농사를 지었다. “삼성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리플렛도 나눠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지역에 가서 지원서를 내지는 않았어요. 공장으로 바로 가서 거기 있는 노동자에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고용을 담당하는 사무실을 안내해줬어요.” A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용이 되었는데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A는 이렇게 말했다. “남성 구직자들은 좀 더 많은 인터뷰 과정을 거쳐야했기 때문에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남성 구직자들은 취업에 실패했죠. 제 생각에 여성들은 좀 더 끈기가 있는 반면 남성들은 말싸움이나 좋아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A는 2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2014년 정직원이 되었다. 그녀는 휴대전화 중심라인(mobile main line)에서 일하고 있다. “저는 중심 라인에서 휴대전화 세트(mobile sets)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A의 월급은 딸을 양육하는데 충분하다. “매월 기본급으로 6백5십만 VND를 받아요. 집세로 7십만 VND가 나가죠. 식료품과 교통비를 지출하고 나면 한 달에 3백만 VND 밖에 저금하지 못해요.” A의 일과는 “꽤 원활한 편이다.” “그런데 며칠 전 현장 감독에게 야단을 맞았어요. 정말 울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어찌다 제가 만든 제품이 불량인 줄 모르겠어요. 저는 재훈련 과정으로 보내졌죠. 그런 실수를 한 건 정말 처음이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A에게 긴장되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압박감을 느낀다고 한다. “가끔씩 압박감 속에서 일하는 느낌이에요. 특히 제품에 불량이 생겨서 여러 번 수리해야 할 때 더 그렇죠. 제품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테스트하고 하면 매우 피곤했어요. 동료들도 마찬가지구요. 가끔씩 우울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후 다시 마음을 다잡으면 보통 때의 기분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이면 보통 때의 기분으로 일을 하러 갔어요.”

A는 종종 사소한 병치레를 하거나 코피를 흘린다. “과거에는 가끔 코피를 흘렸는데, 지금은 심각해졌어요. 밤 근무 후에 생각을 너무 많이 하거나, 피로감을 느끼거나, 밥을 먹고 난 후 자주 코피를 흘려요.” 동료 중 일부가 코피를 흘리기는 하지만 A가 가장 심각하다. “제가 코피를 가장 많이 흘려요. 의사에게 갔더니 그냥 부비강염이라고 했어요. 정맥이 너무 얇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삼성에서 일한 후 A는 두 번 기절했다. 그녀는 보건소(health station)로 옮겨져서 “한동안 휴식을 취하다가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작업장은 소음이 매우 심하다. “작업장에 에어컨이 있어요. 추우면 온도를 올리고, 더우면 온도를 내리죠. 아니면 보통 온도에 놔두곤 해요. 거기엔 항상 소음이 심해요. 소음 측정기를 보면 항상 82 데시벨 혹은 그 이상 나와요. 허용 수준을 초과하는 수치죠. 생산 작업장에서 소음이란 돌아가는 기계나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소리,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 심지어는 서로 혼내는 소리들이 모두 섞인 거예요.”

A의 팀원은 모두 여성이다. “여기의 유일한 남성은 현장 감독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서 저

를 누나라고 부르죠. 감독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저를 혼낼 권리가 있어요. 우리 팀에서 유일한 남자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가끔 이런 농담도 하죠. ‘날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바라보거나, 민감한 부분을 쳐다보면 안돼.’”

대부분의 작업 시간 동안 노동자들은 서있거나 걷기 때문에, 임신한 노동자들은 무척 피곤할 것이라고 A는 생각한다. “우리 중 일부는 근무 시간 내내 서 있고, 다른 일부는 생산 라인의 끝과 끝 사이를 걸어 다녀야 해요. 젊고, 싱글인 여성에게는 문제가 아니지만, 임신 3개월 여성에게는 매우 힘든 문제죠.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왕복해서 걷다보니 많은 임신부들이 유산을 겪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건 그냥 제 생각이예요. 왜냐하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출산을 하는 여성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저는 아플 때도 일하러 가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 조금 어지럽거나 속이 미식거리거나 너무 너무 피곤해도 일을 하러 가요. 하루라도 빠지면 보너스를 많이 못 받을 수 있거든요. 일당은 별로 세지 않아요. 하지만 하루라도 일을 빠지면 약 십만? 백만?(01 million) VND 정도를 못 받게 되거든요.”

A의 어머니는 A가 집 근처에 아무 직장이라도 잡아서 외손녀를 돌볼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신다. “엄마가 이 직장을 그만두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저금을 해야 한다고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저 근무 시간이 좀 더 안정적이고 제 건강에 더 이로웠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현재 A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야기 2

“B”는 4남매 중 막내다. “취직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몇 년간 일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현재 B는 주말에 학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하노이에 있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근무 일정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다. “회사에서 말하기를 낮 근무를 할 때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지만 밤 근무일 때는 쉽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밤 근무 때는 낮 시간에 학교에 간 후 회사로 돌아와서 근무를 하는 걸로 하고 있어요.”

B는 몇 년 간 삼성에서 일하고 있다. 처음에는 친구의 권유로 친구와 함께 지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인터뷰 후 B는 합격했지만 친구를 취업을 하지 못했다. “인터뷰가 정말 복잡했어요. 처음에는 인터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했고, 다음에는 시험을 봤어요. IQ 테스트 같은 거요. 이후에는 건강 검진을 했고 훈련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훈련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랐어요. 회사에 사람이 부족하다 하면 훈련을 일주일도 안 받고 바로 작업장으로 보내졌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공식적으로 채용되기 전에 1주일의 훈련 기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현재 B는 6백만 VND가 조금 넘는 급여를 받고 있다. 그녀는 완제품 조립 라인에서 일하고 있다. “전화기 세트를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는 모든 부품들을 조립해서 세트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완성품은 다른 작업장에서 기능 테스트를 받습니다. 이런 과정 이후에 그 전화기는 사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작업량은 생산량에 기초해서 측정된다. “우리는 주어진 할당 생산량을 매일 채워야 해요. 예를

들어 저는 하루에 2천 피스를 조립해야 해요. 만약 제가 그 할당량을 채우면 저는 제 할 일을 한 거죠. 생산량은 주문량에 달렸어요.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이 모델의 전화기를 더 많이 주문하면 우리는 그만큼 생산을 해야 하는 거죠. 그 요구량을 채우려면 초과 근무를 해야하고, 그러면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거죠.”

삼성에서 일하기 전 B의 가족은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었다. “삼성에 일하면 유해 물질에 노출될 거라는 소문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 공장에 일하러 가기 전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그 곳에서 일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면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지만 내가 유해 물질에 노출된다면 다른 수천 명의 노동자들도 노출될 테고, 심지어 죽기도 할 텐데, 그런 일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제품 작업장에서 일하면서 제품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매일 마그네틱 도어를 지나가야 해요. 최근에 제 건강 검진 결과도 괜찮게 나왔어요. 이후에 제가 아프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저는 건강하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그네틱 도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도어가 뭔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그 도어가 드나드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퍼지는 것 같아요.

B는 처음에 2년 계약을 맺었고, 이후 3년 고용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이 끝나고 나면 5년 고용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학업의 결과에 따라 계약을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B는 종종 피곤함과 두통이 시달린다. “생리 중에 종종 배가 많이 아픈데, 그렇게 말하기가 싫어서 회사에는 그냥 피곤해서 일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2~3시간 정도 쉬도록 허락을 해주죠. 작업장 안에 있는 탈의실이 사용가능해서 거기에 가서 쉬거나 보건소에 가요. 입덧이 심한 임신부들도 똑같이 해요. 보건소는 작업장에서 멀어서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좀 눕고 싶을 뿐이에요. 병가를 내고 싶으면 병원에서 소견서나 진단서 같은 문서를 받아와야 해요. 피곤하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문서를 만들어 줄 병원은 없죠. 그리고 자주 병가를 내면 회사에 라인을 돌릴 노동자들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일하려고 노력하죠.”

관리직은 주로 남성이 맡는다. “제 생각에 여성에 관리 감독직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식 때문에 바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 여성이 신혼이라면 그 직책을 맡은 지 한 달 만에 임신을 해서 곧 출산휴가를 써야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그 여성을 대신할 다른 관리 감독을 뽑아 훈련시켜야 하고. 그러니 이 직책에는 남성을 뽑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더 전문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현재 B가 유일하게 바라는 것은 근무 시간 사이에 쉬는 시간이 좀 더 길어졌으면 하는 것이다. “쉬는 시간에 음료를 마시거나 아니면 그냥 쉬러 매점에 갈 수 있어요. 삼성의 규칙에 따르면 우리는 앉아서 자는 것은 되지만 절대 누워서 자면 안 된다고 해요.”

이야기 3

“C”는 회사에 대해 아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채로 그냥 친구를 따라 왔다. “부모님은 제가 원한다면 가도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이곳의 생활환경에 대해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이후에 회사 기숙사에서 쪽 살면서 문제는 없었어요.”

C에게 적응하기 가장 어려운 일은 순환교대근무(rotational shift work)이다. “이렇게 피곤함을

느끼는 건 순환교대 때문인 것 같아요. 낮 근무에서 밤 근무로 변할 때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밤 근무를 할 때는 전날 종일 잠을 자야해요. 밤에 일하면 더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잘 수는 있지만 전날의 부족한 잠을 채워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처음 2년간은 계속 그런 상태였고,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동료들 말로는 제가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다고 해요.”

C는 계약 기간 이외에 근로 계약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처음에는 2년짜리 계약에 사인했고, 다음에는 3년짜리 계약에 사인했다. 매월 받는 보너스에는 A,B,C 3개의 단계가 있다. C는 전문적이고,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승진을 바라지는 않는다. 그에 따르는 압박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매니저에게서 꾸중을 들어요. 우리 작업장에서는 제품의 질이 가장 중요하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작업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특히 회사가 우리 작업장의 인력을 줄였을 때는 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세 명의 노동자가 어떤 일을 했다면, 이후에는 두 명이, 지금은 한 사람이 그 일을 다해야 하는 거죠.”

회사로부터의 압박을 피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은 종종 서로를 꾸짖고, 서로에게 고함을 친다. 하지만 “꾸중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좋은 친구예요. 우리 모두 압박을 느끼죠. 긴박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초대해서 함께 뭔가를 먹거나 퇴근 후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실수를 한 사람은 인정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좋은 관계를 쌓아가는 것 같아요.”

보통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C는 영화를 한 편 본 후 잠자리에 든다. “가끔 언니를 만나러 가기도 해요. 퇴근 후에 돌아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빨리 자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야기 4

“D”는 제품 검사 업무를 맡고 있다. “저는 기계나 화학 물질을 만지지 않아요. 그냥 제 앞에 유리 제품을 두고 검사를 할 뿐이죠.” 고등학교 교육을 마친 후, D는 친구를 따라 이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다. 그 이전에는 이 회사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다. “채용 이후에 회사에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차를 보냈어요. 1주 혹은 2주간 훈련 과정에 참여해야 했는데 회사에서 숙식에 필요한 경비를 다 지불했어요.” 그녀는 직장에서 돌아오면 쉬거나 자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작업장 내 동료들은 대부분 여성이다. “여기에는 남성이 없어요. 남성들을 다른 작업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등 중노동을 하죠.” D의 작업장에는 임신한 여성들이 많다. “임신한 노동자들에게는 좀 더 긴 식사시간이 허용돼요. 작업 중 앉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임신한 노동자들은 보통 앉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그래야지 회사가 급여를 깎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D는 종종 콧물이 나거나 목이 아픈 증상을 겪는다. “날씨가 변할 때는” 가끔 고열에 시달리기도 한다. “한 번은 열이 심하게 나서 관리 감독을 불렀어요. 감독은 매니저를 불렀고, 좀 있다 회사에서 앰블런스를 보내서 보건소로 데려다줬어요. 거기서 응급 처치를 하고 약을 먹은 후

병원으로 저를 보냈어요. 상태가 좀 나아진 후 혼자 집으로 왔죠. 이후에는 복통이 문제가 됐어요. 근무 후나 낮 근무에서 밤 근무로 바꾸고 난 후 종종 배가 아팠어요. 낮 근무 중에는 점심을 정오에 먹는데 밤 근무 중에는 자정에 먹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위가 그 변화에 잘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배가 아픈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하루 종일 잠을 자고 뭘 먹지도 못해요. 복통이 너무 심하면 병가를 쓰기도 하죠. 보통 복통이 4~5분 정도 지속되다가 멈춘 후 1시간 반 정도 이후에 다시 시작돼요. 가끔 그냥 둔통이 찾아올 때는 계속 일을 합니다.”

D는 다른 노동자들이 작업 중에 기절하는 것은 많이 봤는데, 그 이유가 클린룸에서 입어야 하는 복장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클린룸에서 입어야 하는 옷은 너무 꽉 끼기 때문에 쉽게 기절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일하는 작업장에서도 몇몇 동료가 기절한 적은 있지만 그리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클린룸에서 있는 옷처럼 꽉 끼는 옷을 입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D는 자신의 시력이 많이 나빠졌다고 말했다. “최근에 테스트를 해보니 근시(3/10)라고 했어요.” “천 개, 이천 개나 되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작업에 집중을 해야만 하니 멀리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시력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D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 “제 친구들은 매일 해야만 하는 이 지겨운 일에 대해 모두 불평을 늘어놓고 있어요.”

이야기 5

“E”는 고등학교 졸업 후 몇 달간 집에서 지내다가 친구를 따라서 삼성에서 일하게 되었다. 현재 E에게는 결혼 할 남자 친구가 있다. E는 처음에 2년 근로 계약을 맺었다. 계약이 끝나고 3년 근로 계약을 다시 맺었다. 그녀는 현재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으며 5명의 룸메이트가 있다(6명의 노동자 한 방을 쓴다).

E는 퇴근 후 자유 시간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영화를 보거나 쉬면서 시간을 보낸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 때가 많은데 대부분 폰으로 영화를 봐요. 퇴근 후 방에 돌아와서 씻고, 먹고, 쉬다가 잠을 자죠. 친구나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고 난 후 폰으로 영화를 봐요. 가끔씩 초과 근무를 할 때면 피곤하지만 초과 근무를 정기적으로 하면 오히려 괜찮아요.” 그녀의 일상 활동 계획은 근무 시간에 달려있다. 낮 근무를 할 때와 밤 근무를 할 때 차이점은 단 한 가지 밖에 없어요. 밤 근무를 할 때는 아침 10시에 자고 저녁 6시에 출근을 한다는 거죠. 낮 근무를 할 때면 정오에 점심(주된 식사)을 먹어요. 밤 근무를 할 때면 자정에 저녁(주된 식사)을 먹죠. “E는 조립 주요 라인에서 일한다. “우리는 화학 물질은 만지지 않아요.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람들은 특별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는. 건조한 부품들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장갑을 끼고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화학 물질에 노출되지도 않지요.”

E의 정기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좋은 결과를 받았다. “1년에 한 번 검진을 받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회사에 일하지 않았다면 병원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가지 않았을 거예요. 몸이 안 좋거나 아파야만 병원에 갔겠죠. 저는 건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실 정기 검진을 받아서 크게 좋은 것도 모르겠어요.” 정기 검진 때 하는 것은 신장과 몸무게 측정, 호흡 기관의 상태를 확인, HIV와 피부병에 대한 검사이다. “회사에서는 저희의 건강을 확인하는 것은 혹시라도 누가 전염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최근 건강 검진에서 위와 관련된 작은 문제가 발견되었다. “종종 복통이 있냐고 물어보기에 그렇다고 말했더니

그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E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는 것은 회사의 등급 때문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우리의 건강을 3등급으로 나눕니다. 만약에 내가 A등급을 받는다면 그건 내가 매우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의학 용어를 거의 알지 못하니 의학 테스트 결과를 읽을 수가 없죠. 우리는 오직 병에 걸려서 아플까봐 그것만 걱정합니다.” E는 종종 약한 감기에 걸리거나 잔병치레를 한다. “그런 일은 날씨가 맑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날씨가 갑작스럽게 바뀌면 종종 콧물이 줄줄 흐르고 두통을 앓아요. 다른 노동자들도 비슷하고요,” 하지만 E는 계속해서 일을 한다. “돈을 벌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며칠만 일을 안 해도 급여가 많이 깎일 거예요. 조립 라인을 돌리려면 15명의 노동자가 필요해요. 만약 그 중 2명이 병가를 낸다면 어떻게 라인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루 병가를 요청하면, 감독은 내가 외출을 하거나 개인적인 일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회사에서 일을 쉬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녀의 동료는 이렇게 말했다. “밤 근무를 하고 나면 피부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는 동안에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이 깨 있을 때 잠을 자니까요.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낮 내내 혹은 밤새 서 있다 보니 발도 많이 붓습니다. 처음 일을 하러 왔을 때는 발이랑 무릎이 자주 쭈시고, 피로감을 느끼고, 아팠어요. 나막신(clogs)을 신은 날이면 집에 돌아왔을 때 발이 빨갛게 되고 부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E는 한 번 직장에서 기절한 적이 있다. “어느 밤이었습시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건강할 때였어요. 다른 사람들과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는 걸 느끼면서 기절했어요. 밤 근무 때였습니다. 다행히 전통 의학을 아는 동료가 응급 처치를 해줬어요. 다른 사람들이 앰블런스를 불렀고, 누군가가 저를 차로 데려가서 회사 의무실에 데려다줬어요. 의사가 진찰을 하면서 혈압과 체온을 잰어요.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걸어서 혼자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 날 하루 일을 쉬었고, 그 이후에는 보통처럼 출근을 했어요.” E는 회사에서 자신과 비슷하게 기절하는 사례를 많이 봤다고 한다.

E는 올해 말까지 일한 후 다른 직업을 위한 훈련을 받기 위해 퇴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에게는 일방적으로 근로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어요. 한 달 전에 미리 회사에 알려주기만 하면 되죠. 회사가 인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 달의 10일이나 25일에 퇴직서를 제출할 예정이에요. 여기서 일하는 것이 제 목표는 아니네요. 이제는 지겨워요. 먹고살기 위해 여기에서 일하는 것뿐이에요. 미래에는 다시 돌아와서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부모님 댁 근처에 사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부모님도 제가 여기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제 곧 직업 훈련 학교에 들어가게 될 테니 부모님 댁 근처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나 제 가게를 열고 싶어요.”

부록2: 베트남 전자산업 연혁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 전자산업의 설립과 발달 과정은 몇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VIELINA, 2011).

1975-1990: 베트남 전자산업 수립기. 1975년 이후 북베트남의 전자산업체들과 남쪽에서 새로 차지한 전자회사들이 함께 전자산업을 이루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였다. 1984년, 국가 관리 기구(the Council of Ministers 산하)와 지역 회원기구들(제조업체, 서비스, 부품, 수리업체 포함), 그리고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로 구성된 학술 구조와 더불어 베트남 전국 전자정보부가 설립되었다. 1980년대 후반 베트남 전자산업은 이미 지역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필수 전자제품 일부를 조립할 수 있었다. 1988년까지 전자정보부는 해체되고 중공업부로 편입되었다(Nghĩa, 2008).

1991-1995: 베트남 전자산업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체되거나 형태를 바꾸었다.

1996-2000: 베트남이 시장경제로 강력한 이전을 시작하고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봉쇄를 해제하면서 베트남 전자산업은 황금기를 맞았다. 전자산업이 발달한 나라들로부터 여러 유명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진출하여, 국내 기업들과 합자하거나 생산라인에 투자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제품 조립 위주였다. 대규모로 부품 생산에 투자한 기업은 두 곳밖에 없었으며, 이것도 대부분 혹은 전부가 수출을 위한 것이었다:

1) 남한의 오리온은 하노이전자회사(HANEL)와 합자하고 1억 7천 8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연 16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CRT공장을 건설, 매년 1억 달러를 벌어들였다(Nhiều, 2011). 생산품 중 일부는 국내 TV 조립공장에 납품되었고, 더 많은 양은 수출을 위한 것이었다. 2008년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LCD 제조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되자, 공장은 파산을 선언하고 15년 간 이어졌던 생산을 중단하였다.

2) 일본의 후지쯔는 1996년 약 2억 달러를 투자하여 컴퓨터 마더보드와 하드드라이브용 인쇄회로기판에 특화된 공장을 동나이성 비엔호아 공업지구에 건설하였다. 첨단기술 공정을 통하여 14층의 인쇄회로기판을 생산할 수 있었지만, 이 제품들은 모두 수출을 위한 것이었으며, 매년 수출액은 5억 달러에 달했다.

2001-2005: 이 시기 소비재용 전자제품에 대한 국내 시장의 수요는 크지 않았으며, 소비재용 전자제품 조립은 그다지 이윤을 남기지 못했다. 외국인직접투자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과 정부의 지역화 정책에 직면하여 소비재용 전자제품 조립 회사 수는 급속히 줄어들었다. 1990년대 후반 100개 회사에서 2005년에는 12개만 남았는데 이들은 소니, JVC, 도시바, 파나소닉, 삼성, LG, 대우 등 선도적인 일본과 한국 전자기업들, 중국의 TCL, 그리고 소수의 유명 베트남 기업들인 VTB, Hanel, Belco, Tien Dat 등이었다(Nguyễn Hoàng Anh, 2009).

2006-2010: 동남아국가연합(ASEAN) 자유 무역 지대 구상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은 아세안 회원국들로부터 수입하는 전자제품과 완제품 형태의 전기설비에 대한 관세를 30-40%에서 0-5%로 줄여야 했다.

베트남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정회원이 된 후 세계무역기구 가맹 조건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전자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특혜도 없어졌다. 외국인직접투자 회사들 중 일부는 파산했고, 생산을 중단하거나 상업과 서비스 분야로 옮겨갔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가맹 이래 새로운 외국인 투자 흐름이 베트남으로 유입되었는데, 여기에는 삼성전자(남한), 인텔(미국), 니덱(일본), 폭스콘(대만), 메이콤(일본), 노키아(핀란드) 등 대기업들의 전자산업 투자도 있었다. 이들의 투자 사업으로 베트남 전자산업 외국인직접투자 자본은 1백억 달러를 넘어섰다.

부록3: 전자산업 유해화학물질은 신규국제정책 이슈

국제적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SAICM)은 화학물질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엔 환경 단위에서 주도한 국제 정책 협약이다. 2006년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국제회의(ICCM)에서 SAICM을 채택하며 각국 정부들과 다른 참가자들은 아동, 임신한 여성, 가임기인 사람들, 노인, 빈민, 노동자, 그리고 다른 취약 집단들의 건강과 민감한 환경에 화학물질이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더 나은 수단들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들은 화학물질 관리가 어느 정도 진보하기는 하였으나 세계적으로 충분하지는 않으며 여전히 전세계 환경은 수백만 명의 건강과 행복을 해치는 공기, 물, 토양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고 선언했다(IPEN, 2008).

2009년, 전자산업 유해화학물질이 국제 이슈가 되다

2009년 제2차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국제회의(ICCM2)에서 아프리카 지역과 페루는 전기전자제품 생애주기의 유해화학물질을 신규국제정책 이슈로 삼자고 제안하였고 100개국 이상이 동의하였다(UNEP, 2009). 이 회의 결정문에는 전자폐기물 문제와 전자제품 생애주기 모든 단계에 대한 고려 및 유해화학물질 제거의 필요성이 기록되었다. 이 회의 참가자들은 “전기전자제품의 생애주기 동안 화학물질의 건전한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규명하고 평가하기 위한” 워크숍을 열어 그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권고를 만들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워크숍이 열렸다.

2011년, 실천을 위해 중요한 정책 권고가 마련되다

2011년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와 바젤협약 사무국, 스톡홀름협약 사무국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전자제품 생애주기에 대한 워크숍을 열었다. 32개국 정부(베트남 포함)와 기업, 공익 NGO들이 비엔나 회의에 참가했다. 회의 참가국들이 전자제품의 디자인, 생산, 폐기물 투기 발생 국가들을 대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회의의 권고는 유난히 확고했다. 비엔나 회의를 통해 전자산업 화학물질에 대하여 극히 중요한 종합적 국제정책 권고가 만들어졌다(UNEP, 2012). 이 권고는 생애주기에 따라 업스트림(디자인), 미드스트림(생산), 다운스트림(폐기물) 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생산 부분에 대한 일부 핵심 권고는 다음과 같다.

- 정부, 정부 간 기구, 민간 부문을 포함한 비정부 기구들과 여타 주체들은 더 청정한 생산 기술의 사용과 폐기물 최소화, 더 안전한 대체물질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산과 공해예방을 독려하고 촉진해야 한다.
- 생산자와 제조업자들은 화학물질 노출의 저감을 우선시해야 하며, 그 일차적인 방법은 가장 유해한 물질과 생산공정-특히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SoC에 노출시킬 수 있는 공정-을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PBT(잔류성, 생체축적성, 독성 물질), CMR(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 및 발달독성 물질), 신경독성물질, 신경발달독성물질, 호흡독성물질, 면역독성물질, (특정)장기나 계통 독성 물질, EDC(내분비교란물질) 등이 SoC에 포함된다.
- 특정한 보호 및 예방 대책

1. 사업주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위험(risk)을 제거하거나 최소

화해야 한다.

2. 위 1을 시행할 때는 대체(substitution)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즉, 사업주는 해당 (물질이나 공정의) 사용 조건 하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화학물질이나 공정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유해성이 덜한 화학물질이나 공정으로 대체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회피해야 한다.

3. 해당 활동의 성격 상 위험의 제거나 대체가 허락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와 예방 대책을 적용하여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이러한 대책에는 우선 순위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a) 작업 공정과 기술적 제어를 적절히 설계하고, 적합한 설비와 물질을 사용하여, 업무 공간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발생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방법;

(b) 적절한 환기나 조직적인 대책 등 위험이 발생하는 원천 수준에서 일괄적인 보호대책을 실행하는 방법;

(c) 다른 방법으로는 노출을 예방할 수 없는 경우, 개인 보호구 등 개별적인 보호 대책을 실행하는 방법

• 금지되었거나 심각한 환경 파괴를 초래하거나 인간의 건강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반(反)환경적 기술과 제품들은 다른 국가로 이전되어서는 안된다(UNEP, 2009);

•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들과 제품 내에 존재하는 물질들에서 인간과 환경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보는 비밀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 기업이 기술과 제품을 하청업체로 이전하고자 할 때는, 이들이 친환경적이어야 하며, 기업들은 하청업체가 노동자와 주변 지역사회를 보호할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전하기 전에 확실히 해야 한다.

• 생산자와 제조업자들은 정부의 감독과 노동자 및 지역사회 대표자들의 전적인 참여 하에 다음을 확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적절한 관련 정부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 해당 업체 모든 노동자에 대하여 종합적인 직업 관련 건강 조사;

- 제조와 생산에서 사용되는 모든 유해물질의 배출과 노출을 측정하기 위한 종합적이고도 지속적인 산업위생 및 환경 모니터링;

- 노동자 건강에 대한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역학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 자료 (와 적절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

- 이러한 자료들에 기반하여 노동자 건강을 보전 보호하기 위한 실행 계획;

- 주변 지역사회에서 전자제품 생산설비로부터의 오염이 발견된 경우, 제조업자와 생산자들은 보건 연구자들 및 조사자들과 협력하여 건강 영향을 평가 및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취약 인구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각국 정부들은 세계인권선언(국제연합에서 1948년에 채택; 단체교섭권은 단결권과 노동조합 결성권 하위에 포괄되어 있음-제20조와 23조)에서 보장된 바, 기본적 인권으로서 노

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1949년에 채택된 국제노동기구 협약 98호에서도 명백히 다루고 있다. 이 두 가지 권리들에 의거하여 전자제품 생산의 생애주기 각 단계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은 다음의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자기 보호를 위하여 조직할 권리;
- 보건안전위원회를 구성할 권리;
- 일터의 효과적인 안전보건 보호를 감시하고 강제하기 위한 역량의 개발을 위하여 훈련을 받을 권리;
- 안전하지 않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일을 거부할 권리 및 이 권리의 실행에 따른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행동할 권리 및 '내부고발자' 보호)(ILO, 1998);
-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독성 노출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책임을 묻고 보상하는 제도를 각국 정부가 개발하고 실행할 것을 권한다. 전자산업에서 특징적으로 다중의 유해물질 노출이 일어나며 이러한 물질들 대부분이 적절치 못한 방식으로 검사 및 규제되고 있고, 공정 화학물질들이 자주 교체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런 노출 때문에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게 치료와 재활 뿐 아니라 적합하고 시의적절한 보상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함으로써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공정한 보상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보상체계를 고안하고 여기에 사업주가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는 일은 각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전자산업 노동 건강에 대한 미공중보건학회 결의문

1872년에 설립된 미공중보건학회(APHA)는 40개국 의사, 간호사, 연구자 등 보건 전문가들의 모임이다. 2012년 미공중보건학회는 '세계 전자산업 직업환경보건 개선'이라는 결의에 합의하여 통과시켰다. 이 결의는 전자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동반된 독성물질 사용 증가와 부정적 건강 문제들, 특히 아시아에서의 문제를 기술하고 있다. 학회는 결의의 핵심 권고로 다음 내용들을 포함하였다.

- 공중보건단체들은 전자산업 연관 위험에 대하여 독립적 연구를 장려하고 전파해야 한다.
- 전자제품 제조업자들은 공중보건의 기초 원리인 알권리에 입각하여 노동자와 주변 지역사회에 자신들이 사용하고 배출하는 화학물질과 기타 잠재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원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전자제품 제조업자들은 자신들이나 그 도급업체들이 작성 혹은 보관하고 있는 의무기록 및 노출 모니터링 방법과 결과에 대한 접근권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 전자제품 제조업자들은 가장 유해한 화학물질과 생산공정을 없애거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적은 안전한 화학물질이나 비화학적 대체물로 대체하는 디자인을 도입하여 독성물질 사용을 저감해야 한다.
- 전자제품 제조업자들은 기술과 생산공정을 하청업체들에게 이전하기 전에 그들이 노동자와 인근 지역사회를 보호할 역량이 있음을 확인해야 하며, 제조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 건강을 보호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전자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이 SAICM의 글로벌 실행 계획의 일부가 되다

2012년 제3차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국제회의(ICCM3) 참가자들은 전자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을 SAICM 글로벌 실행계획 일부로 삼았다. 이를 추진한 것은 아프리카 지역이었고, 다른 국가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그 결과 녹색 디자인, 환경친화적 제조, 인식 고취 등의 문제들에 대한 13개 항이 SAICM 글로벌 실행계획에 추가되었다. ICCM3에서는 비엔나 회의 권고를 사용하라고 장려하기도 했으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국제 모범사례 자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 전기전자제품 생산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고 없애는 디자인을 발전시키는 도구.
- 전기전자제품 제조, 사용, 제품수명 말기 단계들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존재를 추적하고 공개하기 위한 기업 표준과 실천.
- 전기전자제품에서 문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대체할 물질에 대한 도구와 정보.
- 기업과 정부의 녹색 구매 전략
- 기업과 정부의 생산자 책임 확대 정책
- (유해물질) 제거나 안전한 대체가 가능할 때까지 실행되어야 할 디자인 및 제조 과정 상의 전략과 실천

전자제품 생애주기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업이 더 필요하다는 국제적 합의

2015년 제4차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국제회의(ICCM4)에서는 100개국 이상이 비엔나 권고를 활용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다음 몇 가지 요점들을 짚었다.

- 생산, 폐기, 재활용에서의 노동자 안전 문제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의 활동을 권한다.
- 2016년까지는 취약 집단과 유관자들을 위하여 전자산업 생산사슬 전 과정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옹호활동, 인식(고취), 정보, 교육, 소통이 개시되어야 한다.
- 주문자 상표 제품을 제조하는 OEM업체들은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전기전자제품 회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해야 한다.
- OEM업체들은 그들의 공급사슬 업체들과 함께 산업위생 및 환경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 OEM업체들은 전기전자제품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취급하거나 노출되는 화학물질들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해야 한다.
- 전기전자제품 구매 계획은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제품의 안전과 지속가능성 향상에 유리하게 수립해야 한다.
- 전기전자제품 생애주기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SAICM의 '제품 내 화학물질' 프로그램과 협력한다.

한글 번역

다산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Translation into Korean

Dasan Human Rights Center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Supporters for Health and Rights of People in Semiconductor Industry